금주의 기도

할렐루야,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의 높으신 이름을 들고 온 세상 끝까지 나아가 주님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이 주 앞에 돌아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 시대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www.chpress.net | 주후 2023년4월 29일 (토) 제 1919 호

□ L. 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세계적 추세인 고령화, 더 많은 선교적 관심/역량 동원해야!

로잔운동, 톰 맥코믹 박사, 고령화 현상은 선교적 우선순위자 기회라고 밝혀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인구 대국으로 등극했다"고 지난 19일,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표했다.

2023년 현재 전 세계 인구는 80억을 돌파했지만, 인구 증가세는 예전처럼 빠르지 않다. UN에 따르면 세계 인구 증가세는 이미 둔화하기 시작해 1950년 이후 가장 둔화세이며, 세계 인구도 2080년 104억 명으로 정점을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이보다 이전에 정점을 찍을 수 있다고 보는 인구통계학자들도 있다.

한편 지역별로 인구 증가에 큰 편차를 보였다.

향후 30년간 늘어나는 인구의 절반은 콩고민주공화국, 이집트, 에티오피아, 인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탄자니아 등 8개국이 차지할 전망이다.

이에 반해 일부 선진국에선 출산율이 여성 1인당 자녀 2.1명 즉 '대체 출산율(한 국가가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미 인구 감소세로 들어섰다.

한편 출산율이 여성 1인당 1.15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인 중국은 기존 예상보다 훨씬 빠른 내년부터 인구가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두 명 이상을 낳도록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쳤음에도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구 증가는 의학과 과학의 발전 덕택으로도 볼 수 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성인기까지, 더 많은 성인이 노년기까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은 계속되면서 2050년까지 전 세계 평균 수명이 약 77.2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올해 전 세계 인구 대비 10%였던 65세 이상 노년층의 비율이 2050년에는 16%로 증가한다는 뜻도 된다.

물론 이 또한 지역적으로 그 편차가 커서, 동아시아와 서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인구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톰 맥코믹(Tom McCormick)은 "세계 고령화와 선교"에 대해서 교회공동체가 대응해나가야 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Global Ageing and Mission).

제임스 힐만은 그의 책, The Force of Character에서 "21세기는 생태계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녹색화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로 인해 회색화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라고 말한다. 인구통계학으로만이 아니라 성격의 관점에서도 세계의 고령화 현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유엔 인구학자들은 500쪽에 이르는 연구 보고서, 세계 인구 고령화(World Population Ageing): 1950-2050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요약한다:

1. 인구 고령화는 전례가 없다. 인류 역사상 이와 같은 현상을 찾아볼 수 없으며, 더 많이,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2. 인구 고령화는 만연해있다. 형식은 다르지만, 모든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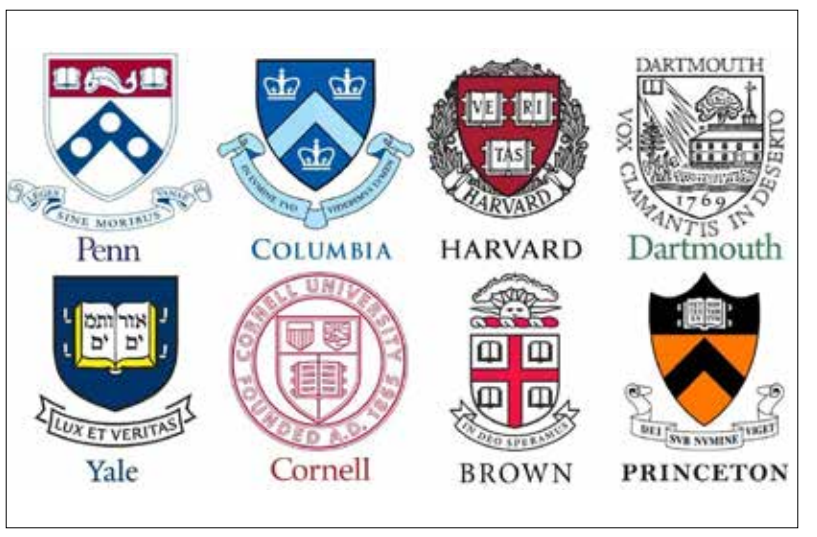
3. 인구 고령화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인간 생활의 모든 측면에 대해 영향을 미치며,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4. 인구 고령화는 지속된다. 우리는 이전의 젊은 인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2020년에 10억 명을 넘어선 60세 이상 인구는, 2050년에는 21억 명, 2100년에는 32억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에 전 세계적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5세 미만 인구를 넘어섰고, 이 추세는 2050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050년의 65세 이상 인구는 5세 미만 인구수의 2.3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치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같은 추세가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 의료, 교육, 가정 등 모든 사회 기반 시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는 또한 엄청난 선교의 기회를 제공한다.

〈3면으로 계속〉



돈 아깝지 않다, 명문대에 갈 수만 있다면!

블름버그, 미 부모들 거액 투자로 대입 컨설팅업체 통해 자녀 명문대 진학시켜

"경험 많은 카운슬러가 당신이 최고의 입학 지원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대니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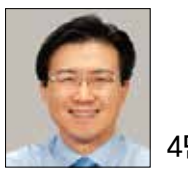
"잘 짜인 프로그램을 통해 입학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줍니다."(니콜)

뉴욕에서 1998년 설립된 대입 컨설팅 업체 아이비와이즈 홈페이지에는 이런 후기가 넘쳐난다. 이 업체는 "최근 5년간 하버드대의 지원자 대비 합격률은 4.1%지만, 우리 학생들의 합격률은 21.1%"라고 자랑하고 있다.

미국에서 이런 대입 컨설팅을 이용하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블룸버그에 따르면, 아이비리그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컨설팅 수수료는 최대 75만달러에 이른다. 중학교 신입생 때부터 시작해 명문대에 입학할 때까지 가이드를 해 줄 때 비용이다. 고등학교 신입생 때부터 도움을 받으면 50만달러로 비용이 다소 줄어들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시장 조사업체 IBIS월드에 따르면, 미국 내 교육 컨설팅 시장의 규모는 2013년 19억7000만달러에서 2019년 29억3000만달러까지 커졌다. 이후로는 28억달러대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Parents Are Paying Consultants $750,000 to Get Kids Into Ivy League Schools: Acceptance rates at the nation's top universities are plunging, and parents are doing whatever it takes to get their kids in).

〈3면으로 계속〉

3면
시 론
민경엽 목사


4면
푸른초장
김도완 목사

13면
C.S.루이스의 생애 산책
강태광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 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 LILYMD. COM

SBS Sharing Bread for Soul
월드쉐어USA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김스전기앞)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2023 국가 기도의 날

목사님! 성도 여러분! 국가를 위한 기도회에 초청합니다!

미국은 70여년 동안 국가 기도의 날을 지켜 왔습니다. 금번 국가 기도의 날(5월 4일)에는 4만 7천여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도회가 열릴 것입니다. 지금은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가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남가주의 한인 교회와 성도들이 4월 30일(주일) 주간을 국가 기도의 주간으로 정하시고 교회에서 광고해 주시고,
수요예배 혹은 금요일 기도회 혹은 주일예배시 미국, 대한민국, 한미 양국의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 길 부탁드립니다.

• 당일 헌금은 튀르키예 지진 복구 기금으로 전달됩니다.

- **일 시** : 2023년 **5**월 **4**일(목) 저녁 **7**시 (찬양 6시 45분)
- **장 소** : 나성순복음교회 (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 **말씀 선포** : 진유철 목사
- **기도 인도** : 강태광 목사, 민경엽 목사, 이종용 목사, 박성규 목사
- **기도 강사** : 김은목 목사, 안현숙 목사, 김보라 목사, 심상은 목사, 김영구 목사, 허 준 장로, 김시온 목사, 오윤태 목사, 양경선 목사, 김재권 장로, 정우성 목사, 샘 신 목사
- **공동주관** : 미주성시화운동본부, 나성순복음교회
- **공동주최** : 청교도신앙회복운동, JAMA, Soon Movement, 세기모(미주서부지부), KACC, 월드쉐어USA
- **협력단체** : 남가주 각 지역 교회협의회 및 목사회
- **협력교회** : 갈보리선교교회, 감사한인교회, 기쁜우리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나침반교회, 남가주 새누리교회, 새생명비전교회, 샘물교회, 샘커뮤니티교회, 은혜한인교회, 예수로교회, 옹기장이교회, 주님세운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충현선교교회, 코너스톤교회, 큰빛교회, 토렌스조은교회, 평화교회
- **연 락 처** : 미주 성시화 운동 본부(213)662-2228

발행인 칼럼

뚝딱 쓱쓱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뉴욕은 변화의 도시이다. 모든 도시가 다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고전미(古典美)와 오래된 문화나 전통을 간직하고 싶어 하는 도시들도 꽤 있다. 그러나 뉴욕은 작심하고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하는 것 같다. 최근에도 많은 건물들이 지어졌고 기존 시설에도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서기도 한다.

그 중에 새롭게 만들어진 전망대 '써밋(SUMMIT)'은 압권이다. 누군가 그랬다고 한다. "만일, 뉴욕에서 단 하루만 있을 수 있다면 어디에 가겠냐고 물으신다면 망설이지 않고 '여기'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 '여기'는 다름 아닌 바로 써밋(SUMMIT) 이란다. 근래에 펜슬빌딩이라고 불리는 연필처럼 가늘고 긴 빌딩이 많이 세워지고 있다. 아무튼 맨하튼은 여러 차례 가보아도 지루하지가 않다. 멈추지 않는 창의적 변화 때문이다.

이민자들이 맨 처음 요구받은 것은 변화이다. 도착하는 날부터 맞닥뜨린 것은 언어와 제도라는 변화의 소용돌이 이다. 이민자의 자녀들도 뜻하지 않는 변화 속에 강같은 눈물을 흘렸다. 필자의 자녀도 그랬다. 큰 아이는 10살 때 미국에 왔는데 학교 다닌지 얼마되지 않아 자주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아프다고 하여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것이 10살 아이의 마음이 아픈 것인 줄은 나중에 알게 되었다. 아들은 졸지(猝地)에 한국의 친구, 학교, 친척, 음식, 놀이들을 다 잃어버리고 아빠 손에 이끌려 자기가 선택하지 않는 변화의 자리에 던져진 것이다. 자기 나름대로 낯선 변화에 저항하다가 변화를 수용(受容)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어느 날 교실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교실 안의 모든 사물을 영어와 한국어, 두 언어로 이름을 붙여 놓은 것이다. 'window 창문'/ 'book 책' 등이다. 아들은 자기를 배려하고 받아준 선생님의 마음에 충격적인 감동을 받았고 미국에서의 변화를 기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렇다. 변화의 시작은 항상 힘들어도 방향이 바른 변화의 열매는 마침내 달다. 변화라는 단어만큼 두렵기도 하지만 기대도 되는 단어가 달리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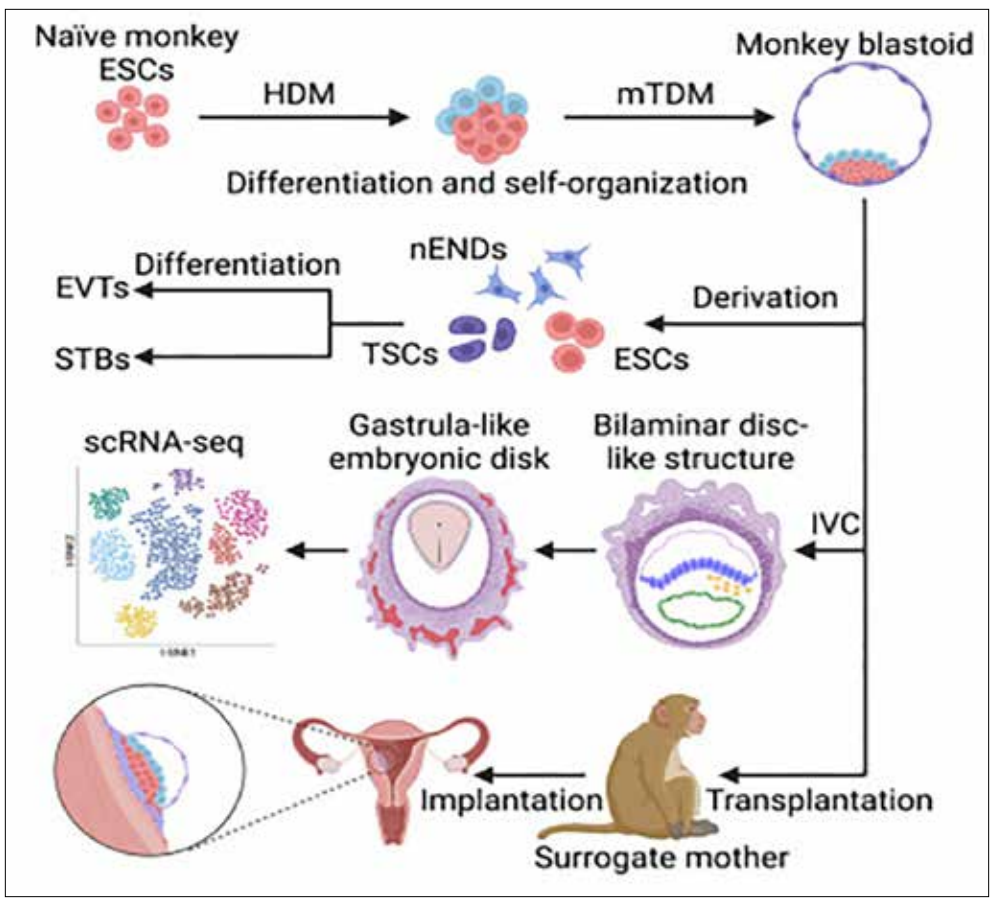
'뚝딱 뚝딱' 소리가 난다. 교회당 안에서 들리는 소리이다. 튼튼하게 지어진 교회당이지만 40년을 지나니 손을 볼 곳이 여기저기 생겼다. 또 얼마 있지 않아 교단 총회가 열리는 장소이기도 해 몇군데 리모델링도 필요했다. 변화의 시간이다. 그 변화의 시간 동안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다. 그 결과 교우들이 깨끗해지고 편리해지고 새로워짐을 누린다. 변화 앞에서 네 가지 태도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변화를 아예 무시하거나, 두려워 거부하거나, 마지못해 받아들이거나, 기쁘게 끌어안는 것이다. 교회당의 여러 변화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교인들이 너무 고맙다.

'쓱쓱 쓱쓱' 소리가 났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얌전히 앉아 있었다. 처음 시도하는 변화이니 오죽 긴장했겠는가. '쓱쓱'은 어제 아내가 염색약을 필자 머리에 발라 주던 소리였다. 여러 과정을 거치고 나니 나의 머리는 드디어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하였다. 10년은 젊어 보인다는 아내의 찬사(?)가 따랐지만, 곧 만나게 될 교우들은 뭐라고 말할지 궁금도 하고 걱정도 된다. 그래도 세상은 어디선가 '뚝딱' 소리도 있어야 하고, 때때로 '쓱쓱' 소리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인공 배아 통해 임신 가능 시대?

MIT Review, 줄기세포로 배아를 만들 수 있지만,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할까 의문 제기

배아는 특별하다. 이 작은 세포 덩어리들은 생명을 창조하는 잠재력이 있다. 이것이 인간 배아를 14일 이상 배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다. 하지만, 줄기세포로 만들어진 배아 유사 구조(embryo-like structures)는 어떨까? 이러한 "합성 배아"는 난자나 정자 세포의 직접적인 기여 없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들이 "진짜" 배아가 아니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같은 제한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We can use stem cells to make embryos. How far should we go?: Synthetic embryos made without eggs and sperm are looking increasingly like the real thing–raising thorny ethical questions).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과학자들은 점점 더 실제와 비슷하게 보이는 배아 유사 구조(embryo-like structures)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지난 6일, 중국의 과학자들이 그들이 어떻게 연구실에서 인간 배반포(하나의 세포로 시작된 수정란이 세포분열을 통해 여러 개의 세포로 형성되는 것, 배의 초기 단계) 유사체(blastoids)를 개발했는지 설명했다. 나아가, 그들은 일부를 원숭이의 자궁에 이식하고 임신의 징후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인간 배아를 수정 후 14일 이후에는 실험실에서 배양할 수 없다는 규제는 1984년 영국 워녹 위원회에서 권고한 뒤, 미국을 포함한 최소 12개국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다*. 왜 14일인가? 이 시기에 배아가 기관과 조직을 형성하는 세 개의 세포층을 발달시키기 직전이기 때문이다. 또한, 배아가 더 이상 분열하고 쌍둥이를 형성할 수 없는 시기로 하나의 개체(individual)가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배반포 유사체는 어떨까? 토론토의 Sick Children 병원 국제줄기세포연구학회(ISSCR) 운영 위원회 위원이자, 발달생물학자인 Janet Rossant는 14일의 규제를 배반포 유사체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말했다. 인간 배아의 경우 정자와 난자가 성공적으로 수정하는 순간부터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줄기세포로 배반포 유사체를 만들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언제부터 규제를 시작해야 할까?

아마도 더 중요한 질문은 줄기세포에서 유래한 구조가 얼마나 인간 배아와 동일한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일부 과학자들에게 이것은 딜레마(catch-22 situation)일 것이다. 만약 배반포 유사체가 배아와 유사하게 된다면, 많은 이들은 인간 배아 연구를 통제하는 것과 동일하게 배반포 유사체를 이용한 연구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앤아버의 미시간 대학 생명공학자 Jianping Fu는, "지난 몇 년간 이 분야에서 얼마나 빠르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감안할 때, 생존 가능한 인간 배아나 태아로 발전할 수 있는 완전한 인간 배아 모델을 생성하는 것에 대해 점점 더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현재 상황으로는, 이 배반포 유사체 중 하나가 태아나, 궁극적으로 아기 원숭이로 성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술은 계속 나아가고 있다. 합성 배아 연구는 지난 5~10년 사이에 시작되었고, 엄청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영국 Crick 연구소 발생생물학자 Naomi Moris는 말했다. Moris는 "우리는 확실히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이 기술이 너무 빨리 추진되지 않도록 동시에 관련 규제를 확실하게 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언론 성명을 통해, 연구팀은 새로운 연구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연구팀은 이러한 종류의 연구를 둘러싼 윤리적 우려를 인정하지만, 배아 유사 구조(embryo-like structures)와 자연 배반포 사이에는 여전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들은 "중요한 것은 배아 유사 구조(embryo-like structures)가 완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분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학계와 공중 사이에 논의가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상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323)665-0009(대표) (213)674-7982
· E-mail :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2. July 4. and Nov 25.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기독교서적센타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액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2 L.A. CA 90006

교회인쇄물 · 헌금봉투 · 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시애틀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청빙 공고

시애틀 온누리교회는 1994년 미국 시애틀에 세워진 한인 교회입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이민교회로써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끌어 주실 담임목사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청빙요건
- 장로교의 교리와 규례를 준수하며, 장로교단에서 목회하기에 결격사항이 없는 분으로서, 영혼 구원과 목양 및 목회에 대한 소명과 열정이 있으신 분
- 정규 신학대학원 졸업 (M.Div. 이상)하신 분
- 만 40세 이상으로 다음 세대와 이민교회 미래를 위한 비전이 있으신 분
- 5년 이상(부목사, 신학대학 교수 및 선교사 경력 포함)의 목회 경력이 있으신 분
-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시는데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이중 언어(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하신 분

제출서류
- 지원서/자기소개서 (소정양식) – 시애틀 온누리교회 웹사이트(http://www.seattleonnuri.org)에서 다운로드 가능
- 목사 안수 증명서
- 정규대학 및 신학대학원 졸업 증명서
- 추천서 (2인)
- 최근 6개월 이내 설교 3–5편 (설교 원고, 동영상 파일 또는 웹주소)
- 가장 최근 목회한 교회 주보 1장

보내실 곳
- Email: seattleonnuri4@gmail.com
- 우편: Seattle Onnuri Church (Attn: 청빙위원회)
- 20150 45th Ave. NE, Lake Forest Park, WA 98155, USA
- 제출마감: 2023년 5월 31일

문의 및 안내
- 모든 문의는 시애틀 온누리교회 청빙위원회 공식 이메일(seattleonnuri4@gmail.com)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접수확인 및 심사결과는 이메일로 통지해드리며, 2차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청빙을 위한 일에만 사용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시애틀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www.seattleonnuri.org

NYU Langone Health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훼밀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NYU 의대 훼밀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 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40 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 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훼밀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SCAN ME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적 추세인 고령화...

〈1면에서 계속〉

동시에, 유엔 세계보건기구(WHO)는 나이에 따른 차별, 곧 연령 차별주의(ageism)를 세계적인 해결 과제로 선포했다. 실제로 그들은 "연령 차별주의가 건강 및 사회복지 서비스, 직장, 미디어 및 법률제도를 포함한 사회의 많은 기관과 분야에 스며들어 있다"고 말한다.

교회와 선교 기관에도 연령 차별주의가 스며들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노인을 돌보라는 성경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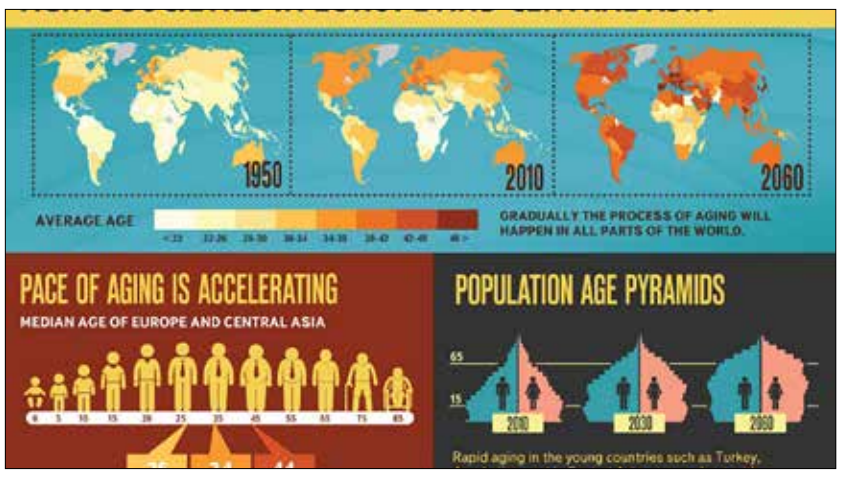
성경은 우리가 노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많은 명령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십계명 중 다섯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며, 이는 신약에서도 종종 반복된다. 늙은이를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대하라는 디모데전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명령은 모든 노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더 포괄적인 명령이 된다. 이는 또한 약속과 경고가 함께 주어지는 가장 첫 번째 명령이다. 그 약속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엡 6:2)는 약속이며, (과부의 경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딤전 5:8)라는 경고이다.

모든 과부가 노인은 아니지만, 많은 과부가 그렇다. 그렇다면, 야고보(1장 27절)가 이야기하는 '참된 종교'의 모습인 과부를 돌보는 일이 어떻게 우리의 주, 구주, 왕,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는 것인가? 간략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부들을 귀히 여기시는 성경의 근거들을 다음과 같이 찾아볼 수 있으며, 이는 노인을 대하는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형성하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

• 하나님은 과부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의 육체적, 심리적 필요를 만족시키신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시 68:5).

• 하나님은 과부를 위해 공급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의 물질적 필요를 채우신다. "매 삼 년 끝에 그 해 소산의 십분의 일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신 14:28, 89).

• 하나님은 과부를 품으신다. 하나님은 특히 그들을 축제로 초대하여 그들의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영적 필요를 채우신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신 16:10-15).



• 하나님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신다. 그분은 분배적인 정의를 포함하여, 그들의 법적인 필요를 채우신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 떡과 옷을 주시나니"(신 10:18).

요컨대 과부에 대한 하나님의 보살핌, 즉 그들을 향한 우리의 보살핌은 전적이고, 완전하며, 그리고 통합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곁의 노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 제공하며, 그들을 품고, 특별한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정의를 행하는 노력을 기울이며 시대적인 노인혐오를 극복하고 노인들을 보살피라는 성경의 말씀을 이뤄가야 한다.

먼저, 우리는 인구 통계의 현실과 위에 요약한 성경의 명령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기도해야 한다. 노인을 보살핀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늙었을 때를 경험해보는 것에 대해 열려있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헨리 나우웬과 월터 개프니가 나이 든다는 것(Aging: Fulfillment of Life)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먼저 질문해야 할 것은 노인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가 아니라, 노인들을 어떻게 우리만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지" 깨달아야 한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노인을 보살핀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늙었을 때를 경험해보는 것에 대해 열려있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지역, 국가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알아보아야 한다. 우리 개인의 관찰과 인터넷 검색은 매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세계의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당신 주변의 교회 지도자와 기독교 기관과 이야기해보라.

돈 아깝지 않다...갈 수만 있다면!

〈1면에서 계속〉

미국에서도 한국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것처럼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세부적인 진학 지도가 이뤄진다. 미국 수능시험인 SAT 준비부터 교외 활동과 방학 계획 수립, 학생에게 잘 맞을 것 같은 대학 추천 등의 서비스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업체는 "아이의 특징이 잘 담긴 추천서 작성이나 입시 담당자들을 놀라게 할 수준의 에세이 작성 등을 통해 합격을 돕는다"고 홍보하고 있다. 당연히 입시 컨설팅 업체의 순위를 매기는 인터넷 사이트(https://www.topcollegeadmissionsconsultants.com/)도 있다.

미국에서 대입 컨설팅 사업이 번성하는 이유는 명문대 합격률이 점점 낮아지자, 부모들이 거액 투자를 불사하기 때문이다. 미국 명문대가 전형을 다양화하는 것과 맞물려 지원자 숫자가 늘어나는 반면 입학 정원은 줄어들고 있다. 올해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들을 기준으로 보면 하버드대 합격률이 3.4%, 컬럼비아대가 3.9% 정도다.

미국에서도 명문대 입학이 투자 가치가 높다는 점도 사설 컨설팅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조지타운대 교육·인력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매사추세츠공대(MIT)에 입학한 학생의 10년 후 소득은 11만1222달러(중간값)인데, 학자금 대출로 생긴 빚은 1만2000달러 수준이다. 투자(학자금 대출) 대비 수익(연소득)이 827% 정도인 셈이다.

미국에서도 좋은 학벌은 자랑거리다. 아이비와이즈의 컨설턴트 에릭 셔먼은 "부모들은 칵테일 파티에 가서 '내 차는 마세라티고, 내 딸은 펜실베이니아대에 다녀'라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명문대 입학에 대한 과도한 열망은 컨설턴트가 연루된 입시 부정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다. 2019년 부유층 학부모들이 최대 650만달러를 '뒷돈'으로 내고 대학교 스포츠팀 감독 등을 매수해 자녀를 예일대, 스탠퍼드대, UCLA, 조지타운대 등 명문대에 입학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아이들을 체육 특기생으로 둔갑시키는 과정에서 입시 컨설턴트가 브로커 역할을 했다.

시 론

외로움을 넘어서는 믿음

민경엽 목사
(나침반교회)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라질의 소설가 파울로 코엘료의 〈흐르는 강물처럼〉에는 "파자마를 입고 죽은 남자"라는 글이 나온다. 2004년 일본의 어떤 남자가 파자마를 입고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 자체는 특별할 것이 없다. 자살이나 타살도 아니었는데 문제는 그가 파자마만 걸친 해골이었다는 것이다. 그의 옆에는 1984년 신문이 펼쳐져 있고, 그 옆 탁자에는 같은 날짜의 달력이 놓여 있었다. 그러니까 그는 20년 동안 그곳에 죽은 채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놀랍게도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다. 사정을 알아보니 그는 그 건물을 지은 건축회사 직원이었는데, 그 회사는 건물을 지은 직후 부도가 났기에 방치되었고, 그는 1980년대 초에 이혼한 직후부터 그 집에 살았다. 전처를 비롯한 그 누구도 그에게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글을 마치면서 코엘료는 아무도 찾는 이 없이 20년 동안이나 완벽하게 고립된 그 사람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배고픔이나 갈증, 실업이나 실연의 상처나 절망보다 더 끔찍한 것은, 어느 누구도, 세상의 단 한 사람도 자기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느낌이라고 하였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것이다. 루마니아의 〈25시〉 작가 게오르기우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외로움이다. 외로움은 죽음과 같다."고 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폴 토우르니에는 "외로움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절망적인 만성적인 질병"이라고 했다. 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의 80%는 외로움 때문에 불면증이나 신경 쇠약 증세가 더 심해진다. 외로우면 사람의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 학자들은 외로움은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보다 더 해롭다고 말한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시대인데 이런 때에 가장 무서운 병이 치매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치매에 잘 걸리는 사람들은 대개 외로운 사람이라고 한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현대인의 고독〉이라는 책에서, 고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상태라고 했다. 이 경우는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여 결국은 스스로 삶을 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 자기를 내어줄 만한 상대가 없는 상태가 있는데 아무도 믿지 못하여 타인에게 공격으로 나타날 경우 과격한 사회적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요즘 많이 나타나는 "묻지마 살인"이라든가, "무차별 총기 난사"와 같이 외로운 늑대들에 의해 자행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바울은 생애 말년 대단히 외로운 처지가 되었다. 로마 감옥에서 죽음의 위협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며 극도의 외로움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고 외로움을 넘어서는 믿음을 보여주었다. 그가 외로움에 꺾이지 않고 장렬한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첫째로, 그는 무엇보다 탓하지 않았다. 자기를 떠난 동역자들을 탓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자기를 탓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졌다. 외로울 때 남 탓을 하거나 내 탓을 하는 것은 나를 더 외롭게 한다. 그러므로 외로울 때 남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할 수 있다면 좀 더 쉽게 외로움의 강을 건널 수 있다. 둘째로, 바울은 외로운 순간에 자기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았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가와 함께 자기에게 오라고 하였다. 또한 올 때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도록 따뜻한 겉옷과 읽을 책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이런 바울의 태도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집안이 썰렁하고 배가 고프면 더 외롭다. 그러므로 외로움을 느낄 때면 식사라도 든든하게 하고 집이라도 따뜻하게 온도를 높이면 덜 외로워진다. 셋째로, 바울은 주님의 임재를 확신하면서 사명의 길을 갔기에 외롭지 않았다. 바울은 주님이 시키신 일을 행했기에 주님이 곁에 계심을 믿으면서 흔들리지 않았다. 성도의 길은 좁은 길이기에 외롭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면 과히 외롭지 않을 수 있다.

minkyungyob@gmail.com

단체티 제작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한번에 해결하세요!
어린이 단체티 부터 청장년 단체티까지
전 연령 단체티를 모두 한곳에서 주문 가능
'히즈핑거몰에서 쉽고빠르게 제작!'
Step 1: 디자인/견적문의
Step 2: 주문하기
Step 3: 시안확인/수정
Step 4: 상품수령
문의 환영!
문의: 718-886-4400 / info@chpress.net
Hisfinger / Psalm 8:3

목자의 묵상

이종식 목사
(뉴욕 베이사이드장로교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어느 책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습니다.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즉, 하루를 보내고 일을 끝마칠 시간이 되면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등에 있는 짐이 내려지길 기다리며, 또 새날이 시작되면 또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얹어 주는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만 짐을 얹어 줍니다. 낙타는 주인이 얹어 주는 짐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낙타는 당신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짊어질 수 있을 만큼 당신에게 짐을 얹어 주십니다. 이때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짐을 받으십니까? 낙타와 같은 겸손한 모습입니까? 새에게 날개는 무거우나 그것 때문에 날 수 있고, 배는 그 돛이 무거우나 그것 때문에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짐이 되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천국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이 말은 너무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어지는 짐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을 우리가 믿음으로 질 때 우리는 망하지 않고 사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짐이 지어진다면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15-1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고 그 있는 처지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져야 하는 십자가는 누구의 실수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하는 귀찮은 일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격이 안 맞는 사람과 얼굴을 계속 보며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평생 껴안고 살아야 하는 자녀의 문제나 부모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를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감사하며 지고 나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면 오늘 나의 십자가를 잘 지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상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david2lord@hotmail.com

푸/른/초/장

김도완 목사
(뉴저지장로교회)

집 지키는 탕자

누가복음 15:1-3, 25-32

누가 주인공인가?

오늘 본문은 흔히 탕자의 비유로 불립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 뒤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뒤늦게 회개하고 돌아오자 아버지가 그를 따뜻하게 맞아들였다는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뒷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던질 질문은 이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이 말해주듯 둘째 아들이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누가 진짜 주인공인지 알기 위해 배경에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종교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는데 그들은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예수라는 랍비와 마땅히 함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부류는 세리와 죄인들이었는데 그들은 너무 비천하고 더러운 자들이어서 어떤 랍비도 더불어 어울리지 않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 싫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들의 태도를 본 예수님이 던지신 비유가 바로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럼 이 비유는 세리와 죄인들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네, 당연히 불평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더러 들으라는 것이지요.

비유 밖에는 예수님과 죄인들과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비유 안에는 하나님과 방탕한 둘째 아들과 성실한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비유 안에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비유의 타겟이 되고 있는 비유 밖의 종교인들에 해당하는 비유 안의 인물은 누구입니까? 바로 큰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비유의 주인공은 바로 큰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가 아닌 '집 지키는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집 지키는 탕자

큰아들을 집 지키는 탕자라고 부르는 이유를 좀 더 살펴봅시다. 25절을 보십시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잃었던 둘째 아들을 맞은 아버지가 벌인 이 잔치는 잃은 자녀들을 찾으신 하나님이 벌이신 천국 잔치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방탕한 동생을 따뜻이 맞이한 것도 모자라 그를 위해 잔치까지 벌였다는 말을 들은 큰아들은 시기심에 화가 나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큰아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으나 천국 잔치의 기쁨은 모르는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천국의 기쁨을 모릅니다. 불만과 시기에 사로잡혀 있으며 몸은 하나님의 집에 있으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큰아들과 같은 상태에 빠지는 것일까요? 그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그가 아버지를 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염소 새끼 때문입니다. 그가 동생처럼 집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염소 새끼 때문입니다. 염소 새끼는 보상을 말합니다. 섬김의 결과로 주어질 상을 바라는 신앙생활을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율법주의 신앙에는 결코 천국의 기쁨이 깃들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 중 가장 저급한 것이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보다 조금 나은 것이 보상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예수님과 바울 사도와 성경이 일관되게 거부하는 율법주의입니다. 이 두 가지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있다면 의무감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고급스러운 동기부여는 바로 사랑입니다. 상벌이나 의무감과 상관없이 오직 사랑 때문에 하는 행동,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르치는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율법사의 질문에 첫째로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큰아들이 집을 떠나지 않은 이유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상벌 혹은 의무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몸으로는 떠나지 않았으나 대신 마음으로 떠나있었습니다. 그래서 집 지키는 탕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동생보다 더 위험한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자신은 집을 떠나지 않았다고 여기기에 아버지께 돌아갈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이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은 이웃과의 관계 역시 파괴되어 있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 동생을 '창기와 함께 먹어 버린 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동생이라고 부르기도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송아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꼴은 더더욱 못 봅니다.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이는 자기가 지키는 규정들을 못 지키는 이들을 보면 못 참습니다. 게다가 그런 이들이 큰 은혜를 누리거나 은사를 받거나 사랑받는 것을 보면 더더욱 시기를 견디지 못합니다. 이런 이들의 경우 진실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의 삶은 종교적 삶에 대한 에너지로 지탱되는 것일 뿐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와 누리는 사랑의 힘으로 영위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풍요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을 채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31절을 보십시오.

기독교인 삶의 가장 큰 행복과 만족은 바로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부족하거나 집이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에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 함께 머무는 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것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누리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내 지갑에 넣지 않아도, 내 소유로 등록하지 않아도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깊은 만족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중 누구보다 가난하셨고 우리 중 누구보다 많은 고생을 겪으셨고 우리 중 누구보다 더 부지런히 일하셨지만, 우리 중 누구도 그분이 누린 기쁨과 만족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더욱 건강하고 부유하고 성공적인 삶에 이르는 도구로 이해하는 것은 현대 교회가 가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교회가 출세한 사람을 높이고 부자 되는 것을 복 받은 것으로 교회도 부자가 되어야 하고 세상을 섬기기보다 세상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가 모두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 참된 만족감을 누리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이웃과도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제야 방탕한 죄인이 잃어버린 형제인 줄 알게 되고 그를 다시 찾는 것보다 기쁜 일은 없게 됩니다. 참된 전도는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만족감을 모른 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비유는 아버지의 큰아들을 향한 호소로 끝이 납니다. 큰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결말이 열려 있는 것이지요. 그 결말을 우리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신실하다고 생각한 바리새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교회를 떠나는 것을 꿈도 꾸어보지 못한 우리야말로 집 지키는 탕자 큰아들이 될 가능성이 큰 사람들입니다. 혹시 우리가 심판이나 보상, 의무 때문에 교회는 떠나지 않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만족을 잃어버린 채 염소 새끼 같은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면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호소는 바로 우리를 향한 것이 됩니다. "여기 아버지 안에서 모든 풍요를 발견하고 잃은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천국 잔치가 열렸다. 너도 어서 마음으로 돌이켜 이곳으로 들어오렴. 그리고 영생을 누리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kpcnj.home@gmail.com

성경 말씀대로 믿는 신앙을 보기 어려운 시대이다. 각자의 생각이 너무 많고, 그 생각들을 지지할 작은 기계뭉치의 서비스가 놀랍기 때문이다. 기준이 없는 시대가 되어간다. 결국, 그 폐해의 결과는 오롯이 기준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몫이다. 성경은 삶의 잣대(Canon)와 기준이 된다. 많은 감정과 이해가 다를지라도, 기준에 맞추어 삶을 살아가면 마침내 꽤 괜찮은 인생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눈대중으로 지은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인생은 지으시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 예배를 받기 위해 지으셨다. 인간 창조의 이 목적은 하나님께는 영광, 인간에게는 기쁨이라는 최고의 복이 된다.

죄된 인생의 회복

죄덩어리 인생이 삶을 회복할 길이 무엇인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씻는 데서 시작된다. 인간은 여러 가지 욕심과 야망을 통하여 인생을 꽤 폼나게 만들려한다. 그러나 누구나가 맞이하는 '임종'의 때를 살펴보면, 결국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고민은 '죄'의 문제에 귀결됨을 알 수 있다. 최근 7-8개월을 투병하시다가 천국으로 부름받으신 집사님이 계셨다. 일흔의 연세이면 아쉬움이 남는 나이기에, 온 교회가 회복을 위해 많이 기도하고 애를 썼다. 폐암3기를 잘 이겨내고 암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때, 당뇨합병증으로 인해 중환자실을 가시다가 마침내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어느날 중환자실에 다시 입원하시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문득 이런 말을 하셨다. "목사님, 제가 죄가 많아서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죄 사하심의 은혜를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다. 직감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분을 부르시고 있고, 그것을 느끼는 가난한 마음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믿음 없음을 탓함이 아니라, 인생이라면 누구나 결국 '임종'의 때가 되어 지면, 생각나는 것이 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죄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김 받고 주님 앞에 잘 서고 싶어하는 사람의 자연스런 마음 때문이다. 그래서 죽음의 문앞에서는 주님을 찾는 마음이 간절해 지는 것이다. 작은 죄라도 회개하면서, 더욱 예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그의 공로 힘입어 천국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동들은 하나님앞에서 큰 은혜를 받은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임종의 모습은 다양하다. 어떤 이들은 임종의 때에 죽음의 공포가 두려워 손톱으로 벽을 긁으며 피를 흘리면서, 아주 흉측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기도 한다. 반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들은, 마치 어린 아기가 엄마품에 안기듯이 평안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끼친다. 금번, 집사님께서도 임종예배 후에 사랑하는 아들과 아내가 머리와 얼굴을 매만지는 가운데 고통없이 평안한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생각건대, 죄의 문제를 두고 주님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했던 그분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 친히 '평안'이라는 선물을 죽음을 목전에 둔 집사님에게 주셨으리라 생각이 되었다

지독한 사랑, 제사(예배)

인생이 대단한 듯, 보이지 않는 우주와 미래의 꿈들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죄의 문제와 이를 해결할 하나님의 은혜외에 더 중요한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편으로 제사와 예배를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이다. 성경을 보면, 제사와 예배를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애쓰시는 마음이 아주 지독(?)하다고 느껴진다. 마치 어린 아기가 김기 약을 먹지 않을 때, 코를 잡고 감기약을 입으로 집어넣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아주 집요하시다. 반드시 받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대단하시다.

소와 양으로 속죄할 형편이 되지 못하면, 집 비둘기를 키워서라도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다. 밖에 나가서 산비둘기를 잡기 어려울 정도의 건강이 어려운 사람도 반드시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이다. 이것도 할 수 없으면 곡식 가루를 드려서라도 죄를 씻는 제사를 꼭 드리기를 원하신 것이다. 얼마나 집요하신가? 그런데, 죄를 속함 받기 위한 속죄제(Sin-Offering)에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피가 필요한 법인데, 이를 어떻게 하시는가?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히 9:22)고 하셨다.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서도 아주 세밀한 분이시다. 당신의 하신 말씀을 상황과 형편을 따라 이리저리 쉽게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다른 생축을 희생한 번제단위에서 그 곡식을 불사르게 함으로서 곡식의 고운가루로 드린 제물을 통해 충분히 피의 속죄와 같은 은혜를 거두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가난하신 분도 아니신데, 왜 이렇게까지 예배를 받으시려는 것일까? 한마디로 이것은 철저히 죄인된 우리를 위함이다. 분명한 회복과 축복의 통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죄의 문제를 떠안고 살아가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 죄의 용서를 맛보고, 감사하고 즐거워함으로 영혼과 육신이 반드시 회복되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이다. 제사가 아니고서는 죄를 회개하고 회복과 축복의 자리에 이를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 제물로 드리는 자리까지 나아가, 마침내 죄인들을 위한 완전한 대속의 사랑을 이루셨던 것이다.

벧엘로 올라가라

숙곳에 사는 야곱의 하나뿐인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강간을 당했다. 아들들은 정결의식인 할례를 이용해서 세겜 족속에게 집단 살인으로 복수극을 펼쳤다. 그동안 집짓고 비즈니스 넓히는 재미에 빠져 살면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자부했던 야곱에게 절대절망이 찾아온 것이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너는 벧엘로 올라가라. 거기서 단을 쌓고 나를 예배하라"(창 35:1) 야곱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 집에 있던 하나님이 싫어할 모든 '우상과 헛된 것'을 다 내어버리고, 마음과 몸을 정결히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기로 벧엘을 향해 출발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벧엘을 향해 예배하러 출발만 했는데, 그들을 추격하고 공격하며 좇아오는 세겜 사람들이 없었다고 기록한다.

벧엘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다. 물론, 이렇게 해석하면 이상한 젊은 목사라고 손가락질하는 진짜 이상한 목사가 드러내놓고 행세하는 그런 종말이 되었지만, 말씀의 진리는 인간의 작은 좁쌀같은 이성과 느릿느릿 말 조림에 의해 의거되지 않는 참된 것이기에, 이처럼 믿고 순종하는 이에게는 출발점에서부터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법이다. 망해가는 집안이, 예배드리고자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먹는 순간부터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를 향해 나아갈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음에 거짓과 어둠의 장막이 지나가고, 밝고 환한 소망의 빛이 비추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예배를 팽개치고 어떻게 인생의 축복을 말할 수 있을까?

하늘이 열립니다

24살에 처음 시골 교회 전임 전도사가 되어, 논밭길 사이로 88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열심히 심방을 했었다. 모든 게 신기하고 좋았을 만큼, 혼자 산기도를 다니면서도 두려움이 없었던 용맹무쌍한 전도사 시절이었다. 그중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다. 여름날에 어려움있는 가정을 심방했다. 남편 집사님은 대낮부터 한잔하고 얼굴이 벌겋게 누워있고, 아내 집사님은 머리를 싸매고 이불깔고 다른 방에 드러누워 있고, 아이는 밥도 제대로 못 먹은 듯 힘없이 마루에 걸터 앉아 다리를 떨고 있었다.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그려지는 인상깊은 가정이었다. 곧 부부싸움이라도 날 것 같은, 아무런 소망의 빛을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가정 집이었다.

대뜸 심방왔노라고 소리를 내고는 예배드리자며 일어나라고 했다. 그때 대뜸 남자 집사님이 소리쳤다. "전도사님, 예배드리면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답니까?" 그때 무슨 용기와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지, 아주 크게 외쳤다. "예 언젠가는 반드시 떨어집니다." 놀랄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는데, 내 목소리에 놀란 듯, 이리 저리 술도 덜 깼을 모습으로 찬송을 따라 부르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기까지 아주 인상좋은 사람의 모습으로 교회를 잘 출석했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얼마 전 교회창립기념 화보집을 보내왔는데, 어려움을 잘 회복하고 여전히 교회를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더불어 자손들에 대한 소개도 있는 것을 보며, 가정이 절망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회복이 된 모습이었다.

나의 짧은 심방과 그 가정의 회복이 그렇게 큰 연관은 없었을 지라도, 그때 이후로 나는 심방을 가면 꼭 하는 버릇이 생겼다. 심방하는 가정이나 사업체가 답답한 마음이 들수록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목사는 반드시 심방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회복과 축복을 시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반드시 긍정, 소망의 메시지만을 전하고 온다는 것이다. 간증을 많이 주셨다. 죄의 문제 뿐 아니라, 어둠의 답답함을 물리치는 힘도 예배에서 시작된다.

빛, 교회와 예배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토산이 썩기 전에, 회복과 축복

-죄, 하나님의 사랑, 예배-

한국에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가정을 심방했던 또 다른 기억이 있다. 컴컴한 반지하에 사는 가정이었다. 남편은 IMF로 직장을 잃고 누워 있었고, 아내는 가슴과 자궁에 동시에 무슨 큰 수술을 하고서 돈이 없는 중에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다. 집 자체가 빛이 들어오지 못해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실제 영적으로도 아주 어두운 곳이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중에 부인이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자녀들도 셋이 있었는데, 부인의 말로는 애들이 제일 믿음이 좋다는 것이다. 믿음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아이들을 교회가서 놀도록, 교회로 보낸 것이 이유라고 했다.

그 엄마는 자식들에게 집안의 캄캄한 환경만 보면서 우울한 얼굴로 사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교회를 가보니, 사람들이 모두 밝고 환하고 친절하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틈만 나면 애들을 교회로 보냈는데, 과연 아이들의 말과 행동과 얼굴빛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이들이 교회에서 잘 자랐다. 부모가 자신의 힘든 환경만 보여준 게 아니라, 교회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준 것이 변화와 축복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자식들을 향한 부모의 책임이 무엇일까? 자녀사랑의 마음으로 쏟아내는 인생철학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교회와 예배 가운데 노출시켜 주는 것이다. 그때,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친히 키우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의 집에는 거하기만 하여도 복이 된다고 약속하지 않는가?(시 84:4) 이후로 "교회와 예배"는 나의 목회철학의 제일 화두가 되었다. 교회로 와라, 예배 드리자! 회복과 축복이 나타날 것이다.

토산이 썩어버림

이민 목회를 하며, 가정사를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끼는 가정들이 있다. 게다가 열심히 산다는 핑계에 심방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열심히 살아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토산의 열매가 없는 모습이 많이 발견된다. 열심히 자녀를 길렀지만 신앙적으로 불신의 길을 가고 있고, 제대로된 일자리도 없어서 근심하며 살고, 이민와서 열심히 사업을 경영하면서 고생은 했는데, 건강만 잃어버리고 소득은 찾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이들이 너무 많다. 성경의 용어를 빌리면, 토산이 썩었다고 할 수 있다. 열심히 인생의 나무를 거름주고 키우고 마침내 열매를 수확하게 되었는데, 손에 쥔 열매가 썩어버린 것이다.

회복과 축복

알게 모르게 토산이 썩어버린 가정들이 많다. 또한 무감각하여 깨닫지 못하지만, 토산이 썩어가는 가정들이 많다. 이를 회복할 길이 무엇일까? 토산이 썩어버린 가정과 삶이 회복할 길이 무엇일까? 여름이 시작된다. 여러 가지 행사와 프로그램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다시 예배의 본질 앞으로, 교회를 중심하여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눈에 보이는 탁한 현실의 공기를 호흡하지말고, 하늘의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며 맛볼 수 있는, 그래서 생기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할 것이다. 부모가 그 생기를 호흡할 때, 절로 자녀들에게도 그 복이 흘러갈 것이다. 맛난 토산의 열매로 만족할 것이다.

davidnjeon@yahoo.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씰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저는 장차 목회자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신학생입니다. 저는 강단에서 목회자가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어릴 때부터 이 설교사역이야말로 가장 가치있고 영광스러운 사역으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훌륭한 설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설교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토랜스에서 최 신학생이

"공부에 더 이상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은 설교단에서 더 이상 거두지 못할 것이다"

A: 우선 다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고자 합니다. 지나간 세대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그래함 목사는 1979년 런던에서 약 600명의 목사들에게 강연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전부 다시 한다면 두 가지를 바꾸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그는 자신이 했던 것보다 세배는 더 많이 공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많이 설교하고 너무 적게 공부했습니다." 둘째, 그는 더 기도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행 6:4절의 고백처럼 목회자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설교는 존스토트 목사가 살아있는 교회란 책에서 설교는 어떠해야 할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경적인 동시에 동시대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설교는 성경에서 나오고 설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강해이기에 설교는 강해설교입니다. 설교단에서 자신의 이론이나 견해가 아닌 성경본문을 바로 해석하고 충실해야 합니다. 강단에서 나는 이렇게 상각합니다가 아니라 "The Bible says(성경이 말하기를)"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설교는 동시대적이어야 합니다. 현대 세계와 공명하고 청중이 처한 상황에서 현실과 씨름을 합니다. 성경본문에 충실하면서도 현대의 상황에 민감한 방식으로 본문을 상황과 연결하여 다리놓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복음주의나 개혁주의 설교자들은 성경 강해를 잘하나 오늘의 현실에 적용하는 면이 아주 약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연구해야 하고 우리가 살고있는 세상도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베스트 셀러도 사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존스토트는 이중적인 경청(Double listening)이라 불렀습니다.

둘째, 설교를 잘하는 것은 은사입니다. 설교를 잘하도록 은사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는 은사인 동시에 그것을 키우고 개발해야 합니다. 설교는 내용도 좋아야 하나 전달(delivery)하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계속 자신을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스펄전은 "공부에 더 이상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은 설교단에서 더 이상 거두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셋째, 깊은 사고와 함께 열정적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설교는 지성과 감성이 연동되고 명쾌한 사고와 통찰력, 깊은 정서가 겸비되어야 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설교자는 열정적이어야 합니다. 리차드 백스터는 먼저 "빛 (말씀의 빛)이 난 다음에 열(성령으로 불붙는 열정)이 나야한다"고 했습니다.

목회와 선교

백운영 목사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성경을 떠난 미국"

지난달에 미국에서 또 한 번의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고 학생 3명을 포함해 6명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매번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면 총기 규제에 대한 여론이 일지만, 잠시뿐 정치권의 로비로 무마되곤 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며 무고한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는 인간들의 죄성을 확인합니다. 이번에도 의회가 "공격 무기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하면서 여론은 지겨운 대량 총격 사건을 끝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발목이 잡혀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보안이 비교적 허술한 학교에 무단 침입하여 학생들에게 자동 소총으로 난사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네쉬빌의 기독교 초등학교에 침입한 범인은 그 학교에 다녔던 선배로서 이미 학교 출입문을 표시한 상세한 지도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미리 철저하게 계획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총기 사건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이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숨진 28세의 오드리 헤일은 여성이었지만 얼마 전 남성으로 성전환을 하고 최근에 커밍아웃한 트렌스젠더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의사소통을 멀리하고 자신의 감정 표현을 잘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다시 한번 미국이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Fox News 에서는 진보적인 미국이 허용한 성전환 및 그들이 표방하는 사회적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고 있으며 젠더 이슈가 표면위로 떠 오르고 있습니다. LGBTQ 문제는 미국 정치권에서 평등과 인권 문제로 다루지만, 사실은 진리가 비틀어진 어둠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영적 문제입니다.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교육 시스템과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사탄은 이런 사회적 이슈로 파고듭니다.

오래된 질문이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남자의 몸에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거나 여자의 몸에 남자를 담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나?"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트랜스젠더로 성별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남성과 여성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나 남색하는 자, 성도착증에 관하여는 명백히 죄라고 규정합니다. (롬 1:18-32, 고전 6:9-10, 신 22:5). 성별 왜곡에 관하여 유전적 보다는 호르몬적, 심리적, 영적이나 환경에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증세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멀리하기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한 공동체에 가족으로 받아들일 때 치유되고 회복되는 가능성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오드리 헤일이 주변으로부터 소외되었다는 감정이 결국은 비극으로 끝난 것을 보면서 미주 한인 교회가 어떤 배경을 가진 누구든 포용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gypaek@hot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자유 대만 만세" 외친 과테말라 대통령…中 반발

대만 문제를 놓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과테말라 대통령이 "대만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과테말라는 대만의 13개 공식 수교국 중 한 곳이다. 중국은 '하나의 원칙'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만을 방문 중인 잠마테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차이잉원 대만 총통 집무실 밖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과테말라와 대만은 형제 국가이자 중요한 동맹국"이라며 "과테말라는 대만과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인어로 연설한 히아마테이 대통령은 연설 중 '대만공화국(Republic of Taiwan)'이라는 명칭을 두 번 사용했다. 잠마테이 대통령은 "과테말라는 계속해서 대만의 굳건한 외교적 우방이 될 것"이라면서 "자유 대만 만세"를 외치는 것으로 연설을 마쳤다. 옆에 있던 차이 총통은 웃으며 영어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잠마테이 대통령은 이후 이어진 대만 입법원(국회) 연설에서도 '대만공화국'을 언급해 입법위원들로부터 기립 박수를 받았다.

중국은 반발했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잠마테이 대통령의 대만 방문에 대해 "중국이 182개 국가와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 국제 대의이고 인심의 지향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과테말라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하며 과테말라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단 군벌 '72시간 휴전' …각국 철수작전 본격 재개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교전 중인 정부군과 준군사조직 신속지원군(RSF)이 미국의 중재로 72시간의 추가 휴전에 합의했다. 각국은 이 시간 동안 자국민 철수 작전을 본격 재개했다.

영국은 25일(현지시간) 수단에 발이 묶였던 자국민 철수 작전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영국은 수도 하르툼 외곽의 공군기지를 통해 현지에 체류 중인 4000명 넘는 자국민을 대피시킨다는 계획이다. 스위스 정부도 새로운 휴전 상황을 이용해 수단에 잔류 중인 자국민 100명을 대피시키기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밝혔다.

모로코도 200명 넘는 자국민을 하르툼에서 포트 수단까지 육로로 이동시킨 뒤 군용기를 이용해 귀국시킨다는 방침이다. 필리핀은 현지 체류자 50여명을 수단과 이집트 국경을 통해 빼내기로 하고, 버스 편을 이용한 수송 작전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21~23일 '이드 휴전'을 전후로 각국의 철수 작전을 통해 수단을 빠져나간 외국인이 400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회원국, 중동 및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들이 긴급 작전을 통해 외교관과 현지 체류자들을 대피시켰다. 한국도 '프라미스 작전'을 통해 수단에서 탈출한 교민 28명을 25일 오후 4시 무사히 귀국시키는데 성공했다. 유엔(UN)도 수단 현지에서 활동해온 관계 기관과 구호단체 관계자 등 700명이 넘는 인원을 육로를 통해 포트 수단으로 안전하게 이동시켰다.

하지만 미국 국적자 약 1만6000명을 포함해 여전히 수만 명의 외국인이 현지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단 정부군과 RSF는 미국의 중재로 25일부터 3일 동안 휴전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수단에서는 지난 15일부터 압델 파타 부르한 장군이 이끄는 수단 정부군과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사령관의 RSF 사이에 무력 충돌이 벌어졌다. 지금까지 약 430명이 숨지고 3700명이 넘는 인원이 다쳤다.

美유권자 38%, 바이든 · 트럼프 리턴 매치에 '피곤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리턴 매치 성사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미국 유권자 10명 중 4명은 대선 재대결에 피로감을 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NBC가 23일 발표한 공화당 차기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지지층 및 공화 성향 유권자 46%의 지지를 받았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31%로 15% 포인트나 뒤졌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6%), 헤일리 전 대사, 스콧 상원의원, 애사 허친슨 전 아칸소주지사(각 3%) 등은 한 자릿수 지지를 얻었다.

공화당 유권자 68%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디샌티스 주지사를 크게 앞서며 대선주자 입지를 굳히고 있다. 그러나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에서 응답자 60%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출마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 출마 선언 4주년인 오는 25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NBC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출마 반대 응답은 70%였다.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 불출마 응답이 51%로 과반을 차지했다. 응답자 48%는 고령을 이유로 들었다.

야후뉴스와 여론조사업체 유거브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차기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결하는 것에 대해 '피로를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는 38%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29%는 두 사람의 재대결에 두려움을, 23%는 슬픔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중복 답변을 가능하게 한 재대결에 대한 응답에서 23%는 희망을, 긍지와 감사를 느낀다는 응답자는 각각 8%, 7%로 조사됐다.

세계 군비 지출 역대 최대 기록…미 · 중이 절반 차지해

2022년 세계 군사비 지출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인 2조2400억 달러(2989조537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대비 3.7% 증가한 규모로, 전체 지출 가운데 52%는 미국과 중국이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군비 지출은 464억 달러(61조9398억원)로 2021년 대비 2.5% 감소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4일 발표한 '2022년 세계 군비 지출 동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우크라이나 원조와 러시아의 위협이 동아시아의 긴장과 마찬가지로 다른 국가들의 군비 지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군비 지출 증가는 중국과 일본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022년 군비로 2920억 달러를 지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군사비를 지출한 국가로 기록됐다. 2021년보다는 4.2%, 2013년 대비로는 63%나 늘어난 규모다. 일본도 지난해 군비로 460억 달러를 지출해 196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로도 5.9%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중서부 유럽의 군비 지출 규모(3450억달러)도 냉전이 종식된 1989년 지출 규모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기 한 해 전인 2013년과 비교하면 30% 증가한 규모이다. 특히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핀란드(36%), 리투아니아(27%), 스웨덴(12%), 폴란드(11%) 순으로 군비 지출이 크게 늘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군비 지출도 9.2% 증가한 864억달러에 달했다. 이번 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군비로 440억 달러를 지출하면서 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중이 전년(3.2%)보다 크게 늘어난 34%를 차지했다. 이번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난 티안 선임연구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군사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점점 더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사고 원자로 바닥 구멍 가능성"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1호기 원자로 바닥의 구멍 발생 가능성을 보고했다고 현지 NHK 방송이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지난달 하순 1호기 격납용기 안으로 로봇을 투입, 원자로 아래를 촬영했다. 이 영상에서 원자로 바닥에 부착된 장치가 보이지 않고 검은 공간처럼 촬영된 곳을 발견했다고 도쿄전력은 이날 원자력규제위원회 회의에서 밝혔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다. 이 원전은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파손됐고, 노심용융(멜트다운)이 발생했다. 노심용융은 원자로 냉각장치 정지에 따른 열 상승으로 우라늄을 용해해 노심부를 녹이는 현상을 말한다.

도쿄전력이 원자로 아래를 촬영한 건 원전 사고 이후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 바닥의 검은 공간을 근거로 일부 장치가 떨어져 구멍을 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했다. 한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 오염수 방류 설비 공사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통신은 "도쿄전력이 오염수 방류에 사용할 길이 1030m의 터널 굴착 작업을 1017m 지점까지 완료했다"며 "방류 전 오염수를 담는 수조를 관통하는 최종 공정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염수 방류는 이르면 7월에 시작될 가능성이 생겼다. 도쿄전력은 지난해 8월 착공한 오염수 방류 설비 공사를 오는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짐바브웨, 자국 화폐 가치 폭락에 '금 기반 디지털화폐' 도입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짐바브웨가 자국 화폐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금 기반 디지털 화폐를 도입한다. 23일(현지시간) 짐바브웨 국영 선데이 메일은 존 만구디아 중앙은행 총재의 말을 인용해 미국 달러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 절하되고 있는 자국 화폐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화폐가 도입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만구디아 총재는 "이를 통해 소량의 짐바브웨 달러를 보유한 사람들은 돈을 디지털 화폐로 교환해 화폐 가치를 지키고 통화 변동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짐바브웨는 2009년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현지 통화의 가치가 폭락하자 자국 화폐인 짐바브웨 달러를 포기하고 주로 미국 달러를 사용했다. 짐바브웨 달러는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2019년 다시 도입됐으나, 정부는 지난 6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달러를 법정 통화로 다시 채택했다. 그럼에도 인플레이션과 통화 가치 폭락이 계속되자 지난해 7월에는 금화 유통을 결정했다. 짐바브웨는 현재 짐바브웨 달러와 미국 달러화의 이중 통화 체제로 이뤄져 있으며, 거래의 약 70%가 달러로 이뤄지고 있다. 짐바브웨 FBC 은행에 따르면 미국 달러에 대한 짐바브웨 달러의 가치는 올해 1분기 58%나 절하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짐바브웨 달러의 가치는 공식적으로 달러당 약 989짐바브웨 달러이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약 1700짐바브웨 달러에 거래된다.

한편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도 자국 통화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과잉 유동성을 해소하고 자국 화폐인 '랜드'의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금화를 도입한 바 있다.

루이비통, 유럽 첫 시총 5000억달러 돌파

프랑스 명품업체 모에헤네시 루이비통(LVMH)의 시가총액이 중국의 명품 판매 호황과 유로화 강세에 힘입어 유럽 기업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5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LVMH가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시총 9위 기업에 오르는 것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LVMH의 주가는 1분기 매출 급증에 힘입어 이번 달에만 6.9% 상승했다. 반면 현재 시총 기준 9위인 테슬라의 주가는 같은 기간 23% 하락해 시가총액이 5050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이는 최근 전기차 가격 인하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LVMH와 같은 유럽 명품업체들은 경제가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가운데 성장세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빅테크'와 같은 존재라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실제로 시총 기준 세계 10대 기업 순위에 애플(1위), 마이크로소프트(2위), 알파벳(4위) 등 빅테크가 다수 포진한 가운데 LVMH가 최근 10위에 진입한 것은 유럽 명품 기업의 가치를 보여준다. LVMH의 이 같은 호실적은 중국에서의 매출 상승이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쟁사인 에르메스도 1분기 강력한 실적을 발표하며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해제와 경제 제재가 유럽 명품업계 전반의 성장을 촉진했다는 것을 뒷받침했다.

G7 앞두고 긴장한 일본… 결혼식도 '강제 연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겨냥한 테러 시도에 놀란 일본이 다음 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경호를 대폭 강화하면서 주변 상인들이 울상짓고 있다. 히로시마현 미나미구 한신지에서 굴구이 전문점을 운영하는 후카노 료코는 25일 인터뷰에서 다음 달 19~21일 G7 정상회의 기간 휴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거래하는 유통업체로부터 이 기간 납품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히로시마현 경찰이 18~22일 시 중심부 일반도로의 교통량을 평소의 50%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히면서다. 이 기간 지하철과 버스 운행도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료코는 "출근하기 어려워졌고 손님도 거의 없을 것 같아 문을 닫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도 "히로시마 밤거리는 지금 안달복달하고 있다"며 침울한 표정을 짓는 상인들을 소개했다. 시 중심부에서 바를 운영하는 한 점주는 "(정상회의 기간) 거리 전체의 활동이 멈출 듯하다. 밤에는 손님이 아예 없을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정상회의 개최 장소인 그랜드프린스호텔의 인근 예식장은 일정 변경을 강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장 담당자는 "수개월 전에 예약한 고객들이 변경을 강요당해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68. 김기순 (1869-?)

김기순(金基淳)은 1869년경에 한국에서 태어났다. 결혼한 그는 가족을 한국에 두고 적지 않은 나이인 41살이 되던 1910년에 단신으로 하와이로 이주하였다. 그는 하와이섬 하갈나우의 파인애플 농장에서 노동하면서 이곳에 있던 한인감리교회에 출석했다.

하갈나우 한인감리교회

김기순의 신실한 신앙생활을 높이 사서 1918년 3월에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개최한 미국 북감리교 제13회 하와이 선교연회는 그를 하갈나우 한인감리교회 권사로 파송하였는데 이때 그는 처음으로 하와이 한인 선교에 발을 디뎠다. 그해 본 교회 순회 전도 목사로 박KH가 파송 받았고, 김기순과 함께 이완구도 권사로 파송받았다.

이듬해 3월에 개최한 제14회 하와이 선교연회는 김기순을 위와 같은 교회 권사로 파송했다. 그런데 1년 후인 1920년 2월에 하와이 선교연회에 보고한 통계 자료에는 100주년 헌금으로 5달러를 헌금했다는 것 이외에는 본 교회의 통계가 전혀 적혀 있지 않아 김기순의 첫 선교활동의 결과가 저조했음을 알게 된다. 윌리엄 푸라이 감리사는 그의 한인 사역 보고에서 한인 사역이 성장하지 않은 주된 난관은 한인들이 한국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화목하게 지내는 능력이 없음에 있다고 꼬집으면서 하와이 선교연회가 재정적으로 많이 후원하면서 한인 사역에 관해서 많이 생각했지만 노력한 만큼 성과가 거의 없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원인은 김기순의 교회에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1920년에도 제15회 하와이 선교연회는 힐로 교회와 하갈라우 교회에 이관묵 목사를 순회 전도목사로 파송하면서, 김기순을 본 교회 권사로 파송했다. 1년 후에도 김기순은 이관묵 목사와 함께 본 교회로 파송을 받았다.

와히아와 한인감리교회

1921년 하와이 선교연회 후에 김기순이 오아후섬 와히아와에 있는 한인감리교회 설교 목사이자 지방 전도사로 파송을 받았다. 푸라이 감리사는 이듬해 2월에 개최한 하와이 선교연회에서 김기순이 지난 1년 동안 믿음직스럽게 성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했다고 치하했는데 1922년 하와이 선교연회에 보고한 통계에서도 볼 수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2명이 성인 세례를 받았고, 4명이 어린이 세례를 받았으며, 어린이 세례를 받고 입교한 사람이 19명이었고, 등록한 학습 교인이 19명이었으며, 등록한 세례교인이 10여 명이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 등록한 학생은 35명이었으나 평균 23명이 출석하였으며, 엡윗 청년회 고등부에 18명이 등록하였고, 엡윗 청년회 중등부에 3명이 등록하였다. 교인들이 1년간 97달러를 헌금했고, 100주년 헌금으로 90달러를 상회에 보냈다.

1922년에도 김기순은 본 교회 설교 목사 겸 지방 전도사로 파송을 받았다. 그해에 마흔네 살 된 아내와 네 살 된 딸을 초청하여 한국에서 하와이로 이주시켜 가정을 이룬 결과 교회는 지난해보다 월등하게 성장했다. 1923년 초까지 1년 동안 7명이 성인 세례를 받았고, 6명이 어린이 세례를 받았으며, 어린이 세례자 33명이 입교를 받았고, 45명이 학습을 받았다. 주일학교에 9명이 등록하여 모두 출석하였고 한 해 헌금한 헌금은 110달러였다. 그런데 100주년 기념 헌금으로 50달러를 상회로 보내 지난 해 보다 적었다.

1923년 2월에 개최한 제18회 하와이 선교연회가 김기순을 본 교회 설교 목사이자 지방 전도사로 파송하였다. 이듬해 2월에 모인 하와이 선교연회에서 푸라이 감리사는 김기순이 와히아와 교회에서 정규 목사의 사역을 잘 감당하였다고 칭찬했다. 그런데 위의 보고에 따르면 호놀룰루 제일교회의 교육 목사인 황사용을 순회 전도목사로 본 교회와 와일누아 교회로 파송하였고, 김기순 외에도 한 명 더 지방 전도사로 파송하였다. 위의 통계 보고에는 1년 동안 하와이 선교연회가 목회자 사례비로 30달러를 보조하였고, 4명에게 성인 세례를 베풀었고, 21명에게 어린이 세례를 주었으며, 등록한 학습 교인은 4명이었고, 주일학교에 3명의 교사와 직원이 있었고, 37명이 등록하였는데 평균 28명이 출석하였다. 한 해 동안 교인이 437달러를 헌금하였고, 100주년 기념 헌금으로 50달러를 상회에 보냈다. 특별히 2,000달러 상당의 예배당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푸라이 감리사가 치하하였듯이 김기순의 탁월한 사역을 반증한다.

김기순은 1924년 2월에도 황사용 목사를 보조하는 설교 목사 겸 지방 전도사로 파송받았다. 황 목사는 본 교회뿐만 아니라 와일누아와 가후구에 있는 교회에도 파송 받은 이른바 순회 전도목사였다. 그해에 동지회 회원들이 한인감리교회를 떠나 따로 한인기독교회를 설립하여 분열의 아픔을 겪었는데 한인감리교회는 '아래 교회'로, 한인기독교회는 '윗 교회'로 불렀다. 그러나 이듬해 4월의 하와이선교연회 보고서에서 약진을 볼 수 있다. 하와이 선교연회가 목회자 사례비로 작년보다 약 3배가 되는 84달러를 보조했고, 성인 세례자는 없었지만, 9명에게 어린이 세례를 주었고, 어린이 세례를 받고 입교한 자는 30명이나 되었다. 61명이 학습 교인으로 등록하였고, 등록한 세례 교인은 44명이었다. 주일학교에 45명이 등록하였는데 평균 37명이 출석하여 작년에 비해 10명 정도 많은 수치였고, 한 해 동안 7달러를 주일학교에 보조하였는데 이는 작년에는 없었던 재정이었다. 그러나 교인들이 한 해 동안 163달러를 헌금하여 작년의 절반도 되지 않았고, 100주년 기념 헌금으로 50달러를 상회로 보내 작년과 같았다.

1925년 4월에 모인 제20회 하와이 선교연회는 김기순을 작년과 같이 황사용 순회 전도목사를 보조하는 설교 목사 겸 지방 전도사로 파송하였다. 그해에 김기순은 호놀룰루에 거주하던 인사들이 조직한 임시정부 후원회 창립인에 그의 이름을 올렸다. 회장에 정원명, 서기에 강영호, 회계에 함잠여였고, 회원은 그를 포함하여 65명이었다. 위의 후원회는 신한민보에 "정부 후원에 뜻을 같이하며 힘을 합하실 동포는 우선 인구세 1원을 호항우함 2117호 정원명 씨 처로 보내시옵소서. 대한민국 7년 4월 1일 임시정부 후원회 창립인"이라고 게재했다.

1926년 2월에 개최한 하와이 선교연회는 지난 1년간의 와히아와 교회의 통계를 발표했다. 작년처럼 성인

와히아와 한인감리교회 (1932년)

세례자는 없었으나 작년보다 2.5배가 많은 22명이 어린이 세례를 받았고, 어린이 세례를 받고 입교한 자가 작년과 같은 30명이었으며, 등록한 학습 교인이 작년보다 6명이 적은 55명이었고, 등록한 세례교인은 작년보다 26명이 많은 70명이었다. 작년보다 15명이 적은 30명의 학생이 교회학교에 등록하여 평균 24명이 출석했고, 교사와 직원은 총 2명이었으며, 1년간 사용한 경비는 작년과 같은 7달러였다. 지난 1년간 교인이 작년의 3배 이상인 520달러를 헌금했고, 100주년 기념 헌금으로 50달러를 상회로 보냈다. 안타깝게도 2명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달에 하와이 선교연회는 작년과 같이 황사용 순회 전도목사를 파송하면서 김기수와 다른 한 사람을 지방 전도사로 파송했다.

1927년 하와이 선교연회는 와히아와 교회에 황사용 목사 대신에 안창호 목사를 파송하면서 김기순을 설교 목사 명단에 올리고 지방 전도사로 파송했으며, 지방 전도사 한 명을 추가 파송했다. 이듬해 2월에 하와이 선교연회에 보고한 통계에서 목회자 사례비 보조로 600달러를 지급하여 특이했고, 어린이 세례자로 입교한 자가 69명이었으며, 등록한 학습 교인이 76명이었고, 세례 교인 89명이 등록하였으며, 주일학교에 등록한 학생이 60명이었는데 평균 45명이 출석하였고, 주일학교에 15달러를 지급하여 지난해보다 성장했다.

1928년 2월에 회집한 하와이 선교연회는 김기순을 설교 목사 명단에서 삭제하였지만, 와히아와 교회 지방 전도사로 파송했다. 작년과 같이 안창호를 목사로 파송하면서, 지방 전도사로 고선순도 파송하였다. 1929년에는 약 300명의 한인이 와히아와에 거주했고, 하와이에서 유일하게 한인 지역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그 해와 이듬해에도 김기순이 와히아와 파인애플 농장에서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이른바 평신도 전도사로 파송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신한민보는 1930년 7월에 '김기순 씨 환갑잔치의 성황'이라는 제하에서 "와히아와 미감리교회의 기둥이시며 모든 고공한 가업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김기순 선생의 환갑 시기를 이용하여 동 지방 친구들은 7월 27일에 성대한 잔치를 배설한 가운데 200여 명 동포가 참석하여 선생을 위하는 축하식을 거행하였는데 꽃과 예물 속에 묻힌 김 노인은 기쁨이 홍안에 가득하였더라."라고 게재했다.

1931년 2월에 하와이 선교연회 감독 베커 박사의 사회로 성만찬을 한 후 필리핀 목사 7명, 일본인 목사 7명, 백인 목사 2명 총 27명과 기타 목사 부인들과 청년 대표들과 내빈 60여 명이 모여 감리사와 목사와 위원의 보고가 있고 나서 조사 위원을 선정하였으며, 장로와 집사의 안수례가 있었고, 연합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감독이 목사의 파송을 전과 같이 파송하여 김기순이 와히아와 한인교회 지방 전도사로 파송된 것으로 보인다.

그해 3월에 와히아와에서 삼일절 기념식이 있었고, 그날 저녁에 농촌 학생회 주최로 와히아와 한인 감리교회에서 200여 명이 모여 특별순서를 진행하였다. 그달 8일에 와히아와 공동회는 한인기독교회에서 모여 김기순을 포함하여 신임 이사부 7인을 선택하였고, 작년부터 시작한 독립저축금은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연전에 청년 구락당 시설하기로 거둔 나머지 390달러는 두 국어학교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오랫동안 한인 교인이 적립한 1,000달러와 하와이 선교연회가 지원한 3,000달러로 총 4,000달러를 들여 64자x44자 크기의 예배당과 주일학교 교실과 한글학교 교실을 각각 지어 1932년 2월에 헌당 예배를 드렸다. 김기순은 100달러를 건축 헌금했다.

그해 5월에 윤봉길 의사의 훙커우 공원 의거 후 상해 임시정부를 더욱 돕기 위해 한인 감리교회에서 40명이 모여 현 순 목사의 상해 진상을 들은 후 정부 후원회를 조직하고 이사원 7인을 선정하여 재정 모집 등을 처리하게 하였는데 이사장으로 김기순이 선정되어 1년에 1달러의 인구세로 큰 일을 할 수 없으므로 12달러 이상 회비를 내기로 결의하고, 김기순은 대부분 회원과 같이 12달러를 내기로 작정했고, 24달러나 36달러를 내는 자도 있었다. 그들은 임시정부가 한양으로 옮기게 되는 날까지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실행하기로 일동 박수한 후 폐회했다.

1932년에서 1936년 사이에 교인 8가정이 한국으로 귀국했다. 이 중에 지방 전도사로 사역했던 고선순과 함께 김기순도 있었다. 귀국한 후 김기순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

damien.sohn@gmail.com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응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다민족 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룹교제및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현장전도: 매주(목)오후 4:00-7:00
Tel.(773)8021112 estcross@yahoo.com
6050 W.TOUHY Ave. Chicago, IL 606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인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15)945-1512, Fax.(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벧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오전 6:00(월-토)
Tel.(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새생명한인교회
담임목사: 정성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전 11:00
E M 예 배: 오후 7:00(목)
새 벽 예 배: 오전 6:00(화/목/토)
구 역 예 배: 각구역별로
한 국 학 교: 오전 10:20(주일)
Tel.(850)423-9700 Cell. (213)703-9961
5502 Old Bethel Rd. Crestview, FL 32536

센터빌한인장로교회(PCA)
담임목사: 차용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초,중,고, 대학부 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Tel.(703)581-9235 www.koreanpcc.org
25454 Gum Spring Road Chantilly, VA 20152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오후 7:00
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월-토)
Tel.(215)542-0288, Fax.(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비젼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Tel.(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t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톤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253)536-6675, www.tacomacrc.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77)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리챠드 백스터(Richard Baxter)의 [회심, A Call to the Unconverted]

8장 회심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시는 하나님(1)

교리 6: 하나님께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고 회심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왜 죽으려 하느냐고 물으신다.

1. 이상한 논쟁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자발적으로 죽으려고 하고 멸망당하려고 하는 것처럼 가정하고 있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 이것은 세상의 가장 큰 부분을 이루고 있는 모든 악인들의 경우에 해당된다. 그 누구도 고의적으로 악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이다. 따라서 그 누구도 고의적으로 영원히 고통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왜 악한 사람이 죽고 멸망당하려 하느냐고 묻는다면, 이것은 악인들이 죽고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라는 것은 더욱 진리이다.

1) 지옥 길을 계속 가는 악인들

악인들은 비록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자기들이 가는 길의 마지막이 어떠한지에 대해 듣게 됨에도 불구하고 지옥으로 가는 길을 계속 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사 59:8). 악인들은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맹세를 듣는다. 그렇지만 그들은 악인이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 "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나의 사랑이 네 속에 있지 않게 된다"(약 4:4; 요일 2:15).

그러하기에 결과적으로 이들은 비록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스스로 멸망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지옥을 사랑하거나 지옥으로 가려 하지는 않지만, 자신들이 고통의 원인이 되는 어떤 것을 사랑함으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진리가 아닌가? 여러분은 지옥에서 불타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신의 죄로써 지옥 불을 붙이고 있고 스스로를 지옥 속으로 던져 넣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나는 독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건물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것이다. 그러나 자살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칼로 내 심장을 찌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불을 나의 짚더미에 던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태우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계속해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 우리는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2) 구원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악인들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만일 그가 음식을 먹지 않고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면 자신은 죽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계속 세속적이고 불경건하며 회심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회심하게 될 수단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멸망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2. 논쟁 당사자들의 특성

사람과 논쟁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주 낮은 위치가 되셔야만 한다. 사람들은 아주 이상할 정도로 눈이 멀어 있고 고집이 세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논쟁을 아주 쉽게 설명해야 할 정도이며, 그들 자신의 구원이 이 문제에 달려 있는데도 이 모든 것들에게 대해 반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퍅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겔 3:7). 그들은 말로써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서도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습니까?"(말 2:17).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은 감히 이렇게 묻는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말 1:6). 또한 제사장들이 제단을 더럽히고 주의 상을 경멸이 여기면서도 그들은 감히 이렇게 말한다. "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말 1:7).

* 질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왜 이유를 제시하시는가?

* 대답 1: 사람은 이성적으로 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성을 주셔서 그것을 사용하게 하신다. 이유가 사람에게 제시되었을 때, 이성적인 존재라면 세상에서 가장 분명하고 위대한 논증에 대해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 대답 2: 사람으로 하여금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심지어 멸망당한 자들도 하나님을 의롭다 하게 될 것이며, 자기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이성적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고, 자신들이 부름 받은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함으로서 자신들을 멸망으로 던져 넣을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다음호에서는 교리6에 대한 적용을 살펴보겠다)

younsuklee@hotmail.com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

본향을 그리며

올 봄에는 주변의 사람들이 유난히 많이 한국에 다니러 가는 것 같다. 나도 언니가 아픈 바람에 삼월 한 달을 한국에 다녀왔다. 인천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두꺼운 겉옷을 입었었는데 몇 주 머무는 동안 어느새 개나리와 벚꽃이 군데군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며 봄이 다가와 있었다. 그동안도 자주 한국에 다니러 간 편이지만 학교 때문에 늘 여름 방학 동안 방문을 했었다. 노란 개나리가 피어 나는 봄에 모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시골에 사는 언니 친구가 뜯어서 보낸 달래를 넣고 만든 향긋한 양념간장 그리고 구수한 냉이, 된장국도 참 오랜만이었다. 모국을 떠난 지도 어언 40년이 더 지나 이제는 미국에서 산 시간이 한국에서 산 시간의 세 배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에 가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면 한동안은 내 나라가 아닌 이 땅에서의 삶이 외롭게 느껴진다. 미국 시민권을 받은 지 삼십 년이 더 지났는데도 여전히 내 속사람은 미국 시민이 아닌 것이다. 아마도 형제, 친척들이 다 한국에 있어서 더 그런 것 같다. 언젠가 한 번은 한국을 다녀오는데 LA 공항에서 세관 직원이 "웰컴 홈!"이라고 반겨주었다. 나는 고맙다고 인사를 했지만, 속으로는 "여기는 내 고향이 아니예요"라고 중얼거렸던 기억이 난다.

고국, 모국, 조국… 이 모든 단어들은 아련한 그리움을 담고 있다.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모국에 대한 그리움은 아마도 낳고 자란 땅을 떠나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몫인 것 같다. 왜 아직도 나에게 우리나라는 훨씬 더 긴 세월을 살아온 미국이 아닌 한국일까? 왜 우리나라에 가면 미세 먼지로 공기도 안 좋은데 복잡한 사람들 틈을 비집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도 마음이 편한 것일까? 아마도 같은 얼굴들, 같은 언어, 같은 문화가 주는 동질감 때문이리라. 이민 일세로 살아가는 외국에서의 삶에서 알게 모르게 겪는 긴장감이 우리나라에서는 없다. 다른 문화에 노출된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오는 기쁨, 다양성에 대한 열림 등 좋은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스트레스를 동반한다. 그래서 요즈음 나이가 들어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와서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접고 일상의 삶에 충실하는 것에 긴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았다. 바쁘게 움직여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한 달 동안 영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기는 조금 민망하지만, 갑자기 다시 영어로 말을 하려니 더듬거려져서 우습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다. 그런 내 모습을 보니 아마 한국으로 나가서 살면 일년 후에는 영어를 다 잊어버릴 것 같다. 시차 적응도 해야 하고 피곤한 몸을 단련해야 한다고 오랜만에 동네 뒷산을 올라가니 한국에 다녀 온 사이에 유채꽃이 만발했다. 눈에 보이는 언덕마다 다 노란 유채밭이 되어 있었다. 한국의 개나리를 마음에 담고 온 나를 우리 동네 유채꽃이 반겨 주었다. 어느 곳이든지 마음 담고 살면 고향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모국을 떠나 외국에 살면서 떠나온 땅을 그리워하는 모습은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을 그리며 나그네와 행인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고 있음을 생각나게 한다. 사랑하는 주님과 먼저 간 믿음의 가족을 기쁨으로 만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특권이다. 고국을 떠난 이민자로서 생소한 언어와 문화를 잘 이겨내고 견디며 이곳에서 살듯이 이 땅에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그 어느 날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아쉬움도, 그리움도 없는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웰컴 홈!"이라고 반겨주시면 우리는 아마 감사함으로 엎드려 주님께 경배를 할 것이다.

lpyun@apu.edu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031)397-6754~5
군포시 오금로 102 (금정동 870-10)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밤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82)2-490-7000 (대), Fax.(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 455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031)977-8383~9, Fax.(031)977-838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752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00 (우)16899지번 : 죽전동 1312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82)2-998-9988, Fax.3927-1008
서울 강북구 노해로 50 (우편번호 : 01072) 지번 :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성일교회

담임목사: 윤상욱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쉽니다)
Tel.(82)2-2643-8553~4, Fax.2648-4662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남로3가길 121

수정교회

담임목사: 이성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어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82)32-568-0191, Fax.(82)32-562-2738
인천 서구 불로로 64 (도로명주소)

승동교회

담임목사: 최영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02)732-2341~3, 사택(02)389-2235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7-1

시은소교회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031)253-1004, Fax.(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100번길 33
시은소교회 [이의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82)2-842-1968, 사택(011)82-2-842-1968
0724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국민일보

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82)2-3142-6080, Fax.(82)2-336-4188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2길 11
www.eshinchon.org

안암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명환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82)2-926-4508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시로3길 50-1
www.anamjeil.or.kr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055)210-5500, Fax.(055)210-5510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 성산구 봉양로 411
www.yangko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길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82)2-888-4813, 331-284-7204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308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02)942-6881, Fax.(02)942-6882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95길 83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82)32-527-1009
부평성전 21377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213(산곡동)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82)2-482-3536, Fax.(82)2-488-4508
(05407)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 219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최현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043)275-9191, Fax.(043)273-8114
(28647)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내수동로 133 (사창동)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82)2-793-7740
(04427)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188

목회서신

김창섭 목사
(세계선교교회)

의심하는 이에게

부활주일에 전할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의심하는 도마가 참 안타까워 보였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하여 의심하는 모습이 꼭 예전의 내 모습 같아 보였기 때문이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지만, 그와 함께 마음 한쪽 구석에서 내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 믿어지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보통 "도마처럼 의심하지 않게 해 주시고,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곤 한다. 물론 주님께서 이런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참으로 좋으련만, 우리의 두 눈 앞에 펼쳐지는 이 세상을 생각해보면 보지 않고 믿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 보인다.

과학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관점은 '정말로 그럴까?' 하는 의심이다. 그리고 그런 의심을 불식시킬 증거를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과학이다. 하지만, 어찌 과학뿐이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의심'은 꼭 가져야 하는 덕목과도 같다. 의심하지 않다가는 순진하고 미련한 사람으로 취급받기 딱 좋다.

그러면, 도마는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 했던 사람일까? 의심만 하고 믿음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을까? 아마도 도마는 믿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라기 보다는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믿고 싶은데 자꾸 의심이 생기고, 친구들이 옆에서 믿으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믿어지지 않아서 답답한 그런 사람 말이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답답한 그런 사람 말이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함께 가자고 찾아왔을 때 따라나서지 않았을까?

오래전에 대학부 전도사로 섬길 때, 한 청년이 성경에 의심스러운 부분을 몇 번씩 찾아서 내게 물어온 적이 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청탁했을 때 본인들이 갔습니까? 아니면 어머니가 갔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까?" 와 같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다르게 언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물어왔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야기했던 것이, 이런 것이 의심스러운 자기 자신이 너무 싫다는 말이었다. 그냥 믿고 싶은데, 그냥 믿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성경을 읽을수록 자꾸 궁금한 것, 의심스러운 것이 많이 생겨서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하다고 말이다.

이 학생의 이런 답답한 마음이 너무나 기특해 보여서 이렇게 답을 했었다.

"내가 의심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단다. 내가 의심한다고 해서 진리가 변하지 않는단다. 실컷 의심해도 된다. 그 의심을 통하여 더 정결한 믿음을 갖게 될 거야.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믿음만은 변치 말아라."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다. 믿음을 의심한다. 의심하면 어떠랴? 의심한다고 하나님이 떠나시겠는가? 의심한다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겠는가?

의심하던 도마를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셨던 것처럼, 의심하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이사야 40:8)

wmclakim@gmail.com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7주년 창립기념성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감격"

새생명오아시스교회(담임 김일형 목사) 부흥성회가 21일(금)부터 23일(주일)까지 창립 17주년 기념성회를 개최됐다. 23일(주일) 오전 11시30분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마지막 날 집회는 양민식 장로가 기도했으며 김일형 목사가 성경봉독과 강사를 소개했다. 이날 장학일 목사(서울 예수마을교회 담임)가 '구원의 감격(벧전 2:24-25)'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장학일 목사는 "예수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감격이다.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는 자가 된 것에 감격하고 기뻐해야 한다"라며 "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첫째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사함을 받게 된다. 둘째 예수의 징계로 인해 우리가 의로워졌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화롭게 되었다. 셋째 질병이 치유 된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결단의 찬양을 불렀으며 김일형 목사가 축도했다. 이번 창립기념성회는 첫날인 21일(금) '하나님의 부흥(말 1:2-11)', 둘째 날인 22일(토) 오전 '기름 부으심(요일 2:27)', 둘째 날 저녁 '갑절의 능력(왕하 2:9-14)'이라는 제목으로 장학일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박준호 기자〉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7주년 창립기념성회에서 장학일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시카고 갈보리교회 고응보 원로 목사 소천

향년 92세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설립회원 제6대 총회장으로 섬기고, 중부노회 공로 목사이며 갈보리 교회 원로 목사인 고응보 목사가 2023년 4월 24일(월) 향년 92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고응보 목사는 1969년에 도미하여 1972년 갈보리 교회를 설립했으며 1973년 중부노회 설립회원 4회 노회장, 1993년 총회 산하 5개 신학교 총장, 1994년학교법인 자유학원 합동신학교 해외이사를 지냈으며 1996년에 갈보리교회 정년은퇴하여 원로목사이자 중부노회 공로목사로 지냈다. 고응보 원로 목사의 고별 예배는 5월 1일(월) 저녁 7시에 갈보리 교회((704 McHenry Road, Wheeling, IL 60090)에서 드려지며, 5월 2일(화)에 개인 문상, 발인예배가 있으며 하관예배가 Irving Park Cemetery에서 오전 11시 30분에 드려질 예정이다.

고 고응보 목사

〈김재상 기자〉

Help People In Need Mission 남가주원로목사회 초청 위로 행사

"인생의 최고의 종점에서 성실히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Help People In Need Mission(대표 박종희 목사)가 남가주원로목사회원들을 초청 위로 하는 성대한 잔치를 지난 20일(목) 오전10시30분 주향교회(김신 목사)에서 가졌다. 이날 김수신 목사(남가주원로목사회 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남가주원로목사회 초청 위로 행사는 홍춘만 목사(동양선교교회 원로 목사)가 기도하고 안병권 목사(가나교회)가 '피플 퍼즐(요 2:1-10)'이란 제목으로 설교 했다. 안 목사는 "오케스트라는 각종 악기들이 모여 종합적으로 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악기가 고장이 나거나 소릴 내지 못할 경우 그 공연은 중단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당하게 된다"며 "비록 적은 악기라도 자기의 소리를 내지 못할 경우 전체적으로 파급을 일으키게 되어 이를 거울삼아 우리 목회자들은 인생의 최고의 종점에서 성실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 하였다. 이어 김수신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제2부로 음악회가 열렸다.

박종희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제2부 순서는 △진도의 북춤(무용수: 김온숙) △O Sole Mio(테너: 최춘식) △Folk Song Medley(색소폰: 이성현) △내 맘의 강물(소프라노: 박종희) △Cantabile(첼로: 최영국) △감사(무용: 김온숙) △은혜(테너: 최순식) △이성현(색서폰): 하는가는 밝은길 △시편 23편(소프라노: 박종희) △내 평생에 가는 길(첼로: 최영국)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박종희 와 최순식의 합창으로 목련화를 부르고 음악회를 마치고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건강식품을 선사하고 마쳤다.

Help People In Need 선교회는 노인과 환자 및 노숙자들을 정신적 심리적 영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섬김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을 누리도록 섬기는 것을 목표로 2009년 설립된 비영리기독교선교단체이다. 또한 본 선교회 산하 wings of Joy 자선공연단은 클래식 연주자들(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색소폰, 성악, 무용)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 10월 창단돼, 동년 11월 제 1회 자선공연을 시작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달 LA카운티 및 오렌지카운티에 소재한 요양병원, 저소득노인아파트, 양로보건센터를 방문하여 노인과 환자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있다.

〈정리: 박준호 기자〉

남가주원로목사회 초청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신국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철야: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718)357-9199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훈련: 오전 10:00 화,토
Tel.(718)265-2584, www.f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뉴욕겟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516)520-2004 www.gcnyk.com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영 어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 오전 10:30
Tel.(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양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준성
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
Tel.(718)662-6611
35-24 Union St, Flushing, NY 11354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516)387-9940, 9942(EM), www.cpccofny.org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욕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학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 청년 예배: 오후 2:00
영어예배: 오전 9:30
수 요 저녁 예배: 오후 8:00
금 요기 도 회: 매월 첫째주 금요일 오후 8:00
Tel. (718)706-0100, www.nypc.org
43-23 37th. Ave Long Island City., NY 11101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
Tel.(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late St. Hackensack, NJ 07601

늘기쁜교회

담임목사: 김홍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 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화-토 오전 5:30
Tel. (718)359-0691, www.joyfulchurchny.org
61-51 Fresh Meadow Ln, Fresh Meadows, NY 11365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영어예배(EM):
1부 오전 11:30 2부 오후 2:0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저녁예배: 오후 6:00
새 벽 예 배: 오전 5:45
전교인특별새벽예배: 매주토요일 오전 5:30
Tel.(718)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St. Bayside, NY 1136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주일 2부 오후 1시50분
주일학교 오후 1시50분
청년예배 오후 3시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347)513-1351 ,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새벽별주님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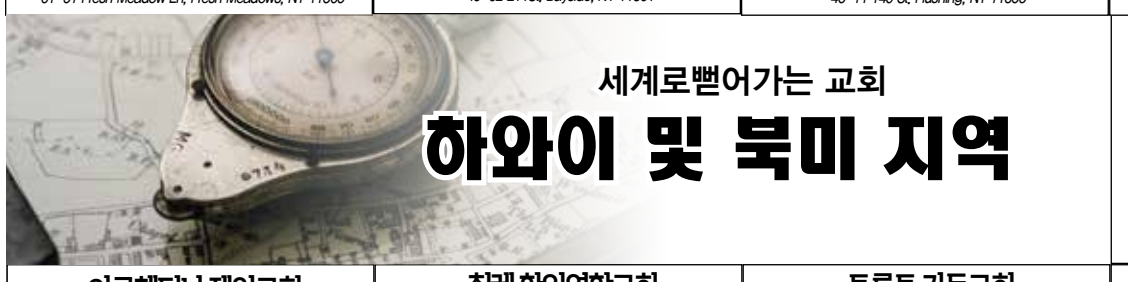
담임목사: 정기태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 벽 기 도 회: 오전 6:00 (월-토)
Tel.(917)733-7387, bmscchurch2021@gmail.com
46-08 161 St Flushing, NY 11358

온누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문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토)오전6:00
Tel.(845) 359-1458, http://onnureechurch.com
10 Oak St, Orangeburg, NY 10962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 오전 6:00
Tel.(718)886-4040,www.kapcq.org
147-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금요중보기도회: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및 기도회: 매월둘째(금) 오후 7:30
Tel.(604)584-5780, www.p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3277-1489, Fax.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Paulo Cep 01528-010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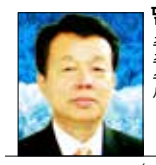
담임목사: 김성엽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유문건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삼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
Tel.(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동부교계 게시판

[ACE] Korean Diaspora 차세대 지도자들을 위한 Vision Network Camp

다음세대를 섬기는 ACE에서는 전세계를 섬기고 이끌어 갈 Korean Diaspora 차세대 지도자를 세우고, 그들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한 "제1회 차세대 지도자 Vision Network Camp(VNC)"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일시 : 2023년 여름 8/1일(화) ~ 21일(월) : 20박 21일 장소 : 미동북부 (뉴욕-뉴저지, 워싱턴 DC.,펜실베니아, 메사추세츠 등등을 중심으로) 대상 : 대학 & 청년 차세대 지도자로 추천하고 싶은 자

▲문의: 사무총장 카톡 아이디 : gjchang00 / 이메일 : adull-lam69@gmail.com

키즈바이블어드벤쳐 Kidz Bible Adventure! 시즌10

낮은울타리 미주본부(대표간사 조희창 목사)에서 ZOOM으로 만나는 〈키즈 바이블 어드벤쳐 시즌10〉을 개최한다. 어느 교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학교가 없거나 사역자가 없는 교회의 친구들이 많이 참여해서 믿음으로 자라가는 축복된 시간되길 기도한다. 기간: 5월 1일~6월 12일까지 매주 월요일 미동부시간 7:30~8:50 PM 6주간 진행 대상: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영어로 프로그램 진행) 진행: 1시간은 전체 프로그램으로 20분은 Small Group 시간으로 진행된다.

▲문의 : 낮은울타리 미주본부 646-300-4790, http://www.wooltarius.org

넘치는교회, 어노인팅 초청 Heart of Worship 금요 예배

넘치는교회(담임 주영광 목사)는 5월 26일(금) 오후 8시에 어노인팅 초청 Heart of Worship 금요예배를 드린다. 넘치는교회 주소: 216-50 28th Ave. Bayside, NY 11360

▲문의: 넘치는교회 718-428-9191, 347-542-6625

열린문장로교회, 열린문 컨퍼런스 2023

열린문장로교회(담임 김용훈 목사)가 한어권과 영어권 교회의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복음의 동역을 함께 꿈꾸는 열린문 컨퍼런스를 5월 8일(월)~10일(수)까지 개최한다. 이 컨퍼런스는 한어권 공동체와 영어권 공동체가 서로 협력하며 의존하는 '상호의존교회모델'을 통해 사례를 나누고 다음 세대와의 사역과 비전을 나누는 컨퍼런스이다. 강사: 김용훈 목사(열린문장로교회), 차태욱 교수(Peter Cha, 트리니티신학교 교수), David Chang 목사(열린문장로교회 영어권교회 리더 목사), John Cha 목사(열린문장로교회 영어권교회 부목사), 김대영 목사(휄로쉽교회 담임, MD)

▲문의: conference@opendoorpc.org, 한국어 703-318-8970, 영어 703-318-8972

임직식 후 참석자들이 다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뉴욕동원장로교회, 설립 35주년 감사 및 임직예배

장로 취임 변윤섭 임직, 권사 3인 김정숙, 서미애, 편선희 임직

뉴욕동원장로교회(담임 박희근 목사) 설립 35주년 감사 및 임직예배가 4월 23일(주일) 오후 5시에 열렸다. 동원교회는 1988년 박장하 목사가 우드사이드에서 개척했으며, 10년 뒤인 1998년에는 아들 박희근 목사가 2대 담임목사로 시무를 시작했다.

예배와 임직식은 교회가 속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동노회 목회자들이 순서를 담당했다. 예배는 인도 박희근 목사, 기도 황상하 목사(퀸즈제일교회), 설교 문덕연 목사(노회장), 봉헌기도 허민수 목사(뉴저지열린문교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임직식을 통해 장로 취임 변윤섭, 권사 3인(김정숙, 서미애, 편선희) 이 임직을 받았다. 박희근 목사는 임직식을 시작하며 임직자들과 교우들의 사역을 인도했으며, 취임 및 임직 기도를 했다.

박희근 목사는 장로취임 기도를 통해 "사명의 소중함을 마음깊이 새기고 교회와 하나님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게 하소서. 성령과 지혜와 사랑이 넘치며, 칭찬받고 존경받는 귀한 장로가 되어 이전보다 더 충성하고, 겸손하고, 기도하는 종이 되게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했다. 권사임직 기도를 통해 "교우들과 사람앞에 칭찬과 덕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권사들 되게하소서"라고 기도했다.

공포와 임직패 수여 후에 교단 총회장 출신의 노회 목사들의 권면이 이어졌다.

동원교회 4인(박윤희, 송지혜, 최정환, 최익환)의 축가 후 이길호 목사(뉴욕성실장로교회 원로목사)가 격려사를 통해 "역사를 저절로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신다. 충성스러운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라며 초대 박장하 목사와 2대 박희근 목사를 통해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뉴욕교협, 2023 뉴욕선교대회와 할렐루야대회 동시 개최

선교대회 강사 류응렬 목사, 할렐루야 대회 장경동 목사 예정

49회기 뉴욕교협(회장 이준성 목사)은 4월 18일(화) 오전에 교협회관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5월말로 예정되었던 제2회 뉴욕선교대회를 7월에 열리는 할렐루야대회와 같이 열기로 했다. 뉴욕선교대회는 장소와 강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2023 할렐루야대회는 7월 20일(목)부터 -23일(주일)까지 4일 동안 프라미스교회에서 열린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선교대회가 열리고, 토요일과 주일은 할렐루야대회가 열린다.

선교대회 강사는 류응렬 목사(와싱톤중앙장로교회), 할렐루야대회 강사는 장경동 목사(대전중문교회)를 최종 조율중이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대안도 준비중이다.

할렐루야대회는 저녁집회만 열리지만, 선교대회는 저녁집회와 함께 1회의 낮 집회도 같이 열린다. 지난해 1회 선교대회는 새벽, 오전, 오후, 저녁 등 하루에 4회의 집회가 열린 바 있다.

올해는 할렐루야대회와 선교대회가 같이 열리는 가운데 회원교회 등 후원금은 교회의 형편에 따라 한쪽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회와 기업들의 부담을 줄였다.

〈정리: 김재상 기자〉

2022년에 열린 뉴욕선교대회 단체 사진

뉴욕교협, 부회장 박태규목사 "49회기 힘껏 돕겠다"

교협 임원회, 공석 부회장 보선, 4개월 공석 채워

뉴욕교협 부회장 이기응 목사의 사퇴로 약 4개월 간 공석이던 뉴욕교협 49회기 부회장에 박태규목사(뉴욕새힘장로교회 담임·할렐루야복음화대회 준비위원장)가 결정됐다.

뉴욕교협(회장 이준성목사)은 18일(화) 오전 교협회관에서 임원회를 열고 보선을 실시, 49회기 부회장 박태규 목사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회장 박태규 목사는 전임 이기응 목사의 잔여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부회장 보선에 앞서 박태규 목사는 부회장출마 이유에 대해 "뉴욕지역을 복음화하고 구원받을 영혼을 찾아 전도하고 또 교회세우기운동을 벌이겠다는 오래전 각오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뜨거운 마음이 생겼다"고 밝히고, "49회기 회장 이준성 목사를 잘 돕고 협력해서 모든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2000년 경부터 뉴욕교협에서 봉사하기 시작했다"고 회고하고 "뉴욕교협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회장 이준성 목사는 지난해 10월 27일 정기총회에서 이기응 목사가 부회장에 선출된 이후 일신상의 이유로 중도사표를 제출했기에 제15조가 명시한 임원결원에 해당하며, 따라서 임원회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만 일 할 수 있는 부회장을 보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노회 참석자들이 다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예장 백석 미주동부노회, 제64회기 춘계정기노회

신병용, 이재관 강도사의 목사안수 청원 처리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미주동부노회는 제64회기 춘계정기노회를 4월 25일(월) 오후 4시 뉴욕사자교회(이창남 목사)에서 현장 및 온라인으로 동시에 참가하는 하이브리드로 열려 대면 28명, 위임 13명, 화상 5명 등 46명이 참석했다.

1부 예배는 부노회장 김학식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다, 찬양인도 신요한 목사, 기도 이창남 목사(부회계), 성경봉독 양명철 목사(회의록서기), 설교 신우철 목사(노회장), 봉헌기도 한기철 목사(회계), 축도 한준희 목사(증경노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신우철 목사는 "시원케 한 자(고린도전서 16:15~18)"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는 초심을 지켜 충성하는 자, 받으려 하기보다는 섬기는 자, 남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보충해 주는 자"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예배 중에 신병용, 이재관 강도사에게 목사고시 합격증을 전달했다. 또 유동혁 전도사의 강도사 인허식도 진행됐다.

2부 성찬예식은 송원섭 목사(증경노회장)의 인도로 진행됐으며, 이어 3부 회무가 노회장 신우철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각부 보고가 진행됐으며, 특별히 지난해 10월에는 뉴욕시찰회 주관으로 선교사후원을 위한 집회가 열렸으며, 올해 1월에는 총회설립 45주년 기념 LA미주대회 및 총회임원 미주순방이 진행되어 미주동부노회원들이 참가했다. 신병용, 이재관 강도사의 목사안수 청원을 처리하고 5월 2일 뉴욕만나교회에서 목사안수를 하기로 했다. 또 유동혁 강도사의 목사고시 청원을 허락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뉴욕교협 부회장 보선 및 임원회 후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이민자보호교회 주최 6회 심포지엄(5.4)개최

아태계 이민역사 공교육의 중요성 주제로

아시아태평양계 이민자 역사교육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심포지엄이 다음 달인 5월 4일(목) 오후 7시 퀸즈한인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에서 열린다. 심포지엄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민자보호교회(위원장:조원태목사) 주최로 열리는 이날 심포지엄은 아시안 이민역사를 미국 공립학교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주제강연에 여지연 교수(노스웨스턴대)가 나서 △아태계 역사:차별과 공헌에 대해 발표하게 되며, 존 리우 뉴욕주상원의원·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이 발제자로 나선다. 후원에는 민권센터, KCS한인봉사센터, 뉴욕교협 아시안청소년센터(AYC), 뉴욕가정상담소, 한중미사랑협회, 상춘회 등이 참가한다.

지난 19일 후러싱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마련한 이보교 위원장 조원태 목사(뉴욕우리교회 담임)는 "올해 6회째를 맞는 심포지엄에서 이민자 역사교육을 주제로 마련하는 것은 아태계 이민역사 교육을 학교교과 과정에 넣을 수 있는 법안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특히 한인동포사회에 속한 우리 자신이 걸어온 길인 아태계 이민자들의 차별역사와 공헌의 역사를 더 잘 아는 일이 절실했기 때문"이라고 심포지엄 개최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백인우월주의의 오만으로 비롯된 백인들의 불행과, 또 아시안 인종 혐오범죄로부터 오는 우리의 불행을 사랑으로 전환시키는 플렛폼이 이번 심포지엄이라며 큰 관심을 요청했다.

이민자보호교회는 아시안 인종증오 범죄가 증가하던 지난해 8월 미국 인권운동의 대부 제시잭슨 목사가 이끄는 무지개연합(Rainbow PUSH Coalition)과 공동으로 뉴욕주 공립학교 역사교육 법안통과를 위한 집회를 여는 등 인종평등과 사회정의 실현에 힘을 보탰다. 특히 존리우 뉴욕주상원의원과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은 뉴욕주의회에 아태계 역사교육의무화 법안(S6359A·A7260A)을 상정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정리: 김재상 기자〉

19일 기자회견을 연 이민자보호교회 관계자들

피종진목사 5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1(월) 오후	K.U Enterprise Blessing
2(화) 오전	Miracles 국제선교센터 (새벽별교회 김수아 목사) 010-9082-9030
3(수) 오전·후	강남 금식기도원 (원장 최동인 목사) 교무부장 김진성 목사 010-3790-2462
4(목) 오후	서울 송파한마음교회 (최윤원 목사) 010-3496-3686
4(목) 저녁	오산리 최자실 기념기도원 (원장 김원철 목사) (02) 6181-9282 주최 : Good TV 부흥협의회
5(금) 저녁	서울 강남반석교회 (강사랑 목사) 010-8331-3431
8(월)~10(수)	정읍 성산십자가교회 (노사라 목사) 010-5418-3537
10(수) 오후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김종섭) 잠실 롯데 콘서트홀
11(목)~13(토)	천안 위대한약속교회 (윤재민 목사) 010-6352-0691
제 230차(A) 해외성회 (230th Overseas Assembly)	
15(월)~16(화)	필리핀 (Philippines) 깔라마시 찬양교회 (하용철 목사)
17(수)~18(목)	필리핀 (Philippines) 깔라마시 원주민 및 목회자 성회 (준비위원장 하용철 목사)
19(금) 오전	시흥 사랑의빛교회 (남보석 목사) 010-7220-0733
21(주) 오후	서울 한마음교회 (최윤원 목사) 010-3496-3686
22(월) 저녁	서울 에바다교회 (정군자 목사) 010-3403-9190
23(화) 저녁	서울 위대한약속교회 (임미향 목사) 010-6201-8374
제 230차(B) 해외성회 (230th Overseas Assembly)	
25(목)~26(금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타쉬켄트 주최 : 서울대학교 ABKI 사무국
27(토)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사마르칸트
28(주)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부하라
29(월)	귀국 (오전)
30(화)	서울 강남반석교회 (강사랑 목사) 010-8331-3431
31(수)	송추 반석기도원 (원장 고권능 목사) 010-2391-3004 주관 : 작은자섬김선교회 (대표회장 양유식 목사) 010-8839-8899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www.nsca.or.kr
Tel. 02)3411-9191
Fax. 02)401-7770

OC교계연합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성금

"모금된 11만4천190불 전액 현장에 사용"

오렌지카운티교계연합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긴급구호금 전달상황보고회가 22일(토) 오전 8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새가족실에서 열렸다. 윤우경 행사홍보위원장(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이사장) 사회로 열린 보고회에서 심상은 목사(OC교협회장)는 "지난 1995년 일본 고베 지진 때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전쟁터같이 처참했던 기억이있다"며 "이번에 OC교계단체가 연합하여 성금을 모금했으며 모금된 11만4천190불 전액이 현장에 사용됐다"고 말했다.

한기홍 목사(긴급구호기금 마련 후원 대표위원장)는 "교계가 연합해서 성금전달을 하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지진피해가 난 지역은 미디어를 통해 접했던 내용보다 참혹했다. 현지이야기는 희생자들이 5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건물에 매몰되어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자들이 많으며 2천 만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텐트촌에서 살고 있으며 NGO를 통해 생필품을 공급 받고있다. 하지만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지진 트라우마가 생겨 힘든 상황에 있는 자들도 많이 있으며 이들을 위해 정신과 치료 등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목사는 "이번에 모금된 금액은 피해를 받은 많은 자들에게는 매우적은 액수다. 10만여 달러를 현지선교사들과 의논하여 여러 곳으로 나눠 지원했다. 특별히 시골마을 등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마을단위로 입양해서 지속적으로 물품을 전달하면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며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는 심상은 목사가 합심기도를 인도했으며 이원석 목사(OC목사회 회장)의 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OC교계 연합 튀르키예 지진 달상황보고를 마치고 기념촬영

풀러 2023 심포지엄에서 강의하고 있는 김영옥 교수

풀러코리언센터 2023 심포지엄

사역을 떠나려고 고민 중인 목회자…주된 요인은 탈진

풀러신학교 코리언센터(디렉터 김창환 교수)가 주최한 2023 심포지엄이 '한국적 상황에서의 영성 형성의 미래'라는 주제로 19일(수)과 20일(목) 양일간 열렸다. 19일(수) 오후 4시10분 '목회적 탈진과 영성형성'이라는 주제로 김영옥 기독교상담학 교수가 강의했다. 김영옥 교수는 "미국에 있는 개신교 목사 중에 사역을 떠나려고 고민 중인 목회자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2017년에는 30%, 팬데믹 이후인 2021년에는 38%, 2022년에는 42%로 집계되었다"며 "주된 원인은 탈진이었다. 탈진의 요인은 목회자들이 새벽부터 열심히 사역을 하지만 열매와 변화가 없을 때 좌절하게 된다. 그리고 영적인 침체, 경제적 문제가 탈진의 요인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교회/목회 지도자들의 탈진은 오늘날 현대 사역에서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종종 이러한 우려는 매우 과소평가되고 교회 환경에서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따라서 원인과 증상, 예방 및 개입에 대해 더 많이 연구함으로써 신학적, 심리적, 문화적 관점에서 목회자들의 탈진에 대해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나안 성도들을 위한 영성형성'이라는 주제 강의를 한 정재영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는 "한국 교계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하였다. '가나안 성도'란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가지고 있지만 현재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찾아 다녔듯이 '새로운'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말을 거꾸로 읽으면 '안나가'인 것과 같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또는 의도적으로 '기성' 교회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가나안교인 현상은 기존 교회에 대한 불만과 함께 제도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가나안 현상은 비제도권의 교회 갱신 운동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며 "문제는 이들이 교회출석자만큼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 설명했다. 그는 "가나안 성도들이 기존 교회는 아니라도 새로운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영성이 유지되고 훈련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개회예배에서 민종기 목사 (LA충현선교교회 원로목사)가 설교했으며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막2:22): 한국교회 영성형성의 발자취'라는 주제로 유해룡 박사(모새골공동체교회)가, 상양 탄 교수(풀러신학대학원)가 '성경적 관점에서 본 영적 건강과 정신적, 정서적 건강의 관계'라는 주제로 두번째 주제 강의를 했다. 또한 선택강의로는 톰 슈완다 교수(휘튼칼리지)가 '말씀과 함께 살기: 기독교 영성에 대한 성경적 원리'라는 제목으로 조의완 교수가 '강박적인 한국적 상황에서 베네딕트의 규범집과 렉시오 디비나'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박준호 기자〉

윤석길 목사가 '질문하며 읽는 바울 신학'을 강의하고 있다.

아주사퍼시픽신학교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질문하며 읽는 바울신학'

아주사퍼시픽대학교(총장 아담 모리스 박사) 신학교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세미나를 20일(목) 오후 7시 오렌지캠퍼스에서 가졌다. 이날 세미나는 윤석길 박사(본교 교수)가 강사로 나서 '질문하며 읽는 바울신학'이라는 주제 강의를 했다. 윤석길 박사는 "바울서신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에 소개된 여러 가지 신학적 흐름이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라며 "당시 주류신학은 '할례 = 구원'이었다. 즉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강력한 신학"이라고 설명했다. 윤 박사는 "초대교회 시절 열두 사도 중심의 예루살렘교회는 바울의 신학과 비교하면 율법과 관련하여 매우 보수적이었다"며 "정결법에 관해서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고수했으며 예루살렘교회는 이러한 문제로 갈등이 생기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정결법에 익숙했던 교회구성원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그는 "고린도전서 12-14장에는 은사에 대해 나와 있는데 바울은 입으로 표현되는 은사에 대해 신중하라고 했다. 이는 방언한 자들이 질서와 품위를 잃어버려서며 방언이 부정적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고전 14장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구절이 여성목사안수를 반대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헬라어 원문을 해석할 때 '여자'가 아닌 '그 여자들'이라는 당시 고린도교회의 특정부류의 사람들로 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은사와 관련된 교훈으로 제시된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석길 박사는 이외에 유대주의자들, 성만찬, 바울의 동역자들 등에 대해 강의했다.

〈박준호 기자〉

제10회 효 글짓기 그림 공모전 시상식

'한인으로, 크리스천으로 정체성 찾기 위한 행사'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미국에서 한인으로서 또는 크리스찬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시작된 효 글짓기 & 그림 공모전 시상식이 하나교회(담임 박종기 목사)에서 있었다. 금번 제10회를 맞이한 본 행사 시상식에서 김영찬 목사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아름답게 이루어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목적으로 효 글짓기 그림 공모전을 하게 되었다"며 "학생들이 그림 그리고 글을 쓰면서 나는 누구인지 정체성을 찾고 부모와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며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바른길로 잘 성장해서 교회와 하나님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수진 전도사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된 시상식은 심사의 원들의 심사평으로 글짓기 부분에는 Lana Min 작가가, 그림 부분에는 주아라 New Art Academy Director가 심사평을 했다. 이어 67명의 청소년들이 효 글짓기와 공모전에 참가하였고 대상 2명, 최우수상 4명, 우수상 6명, 장학상 3명과 특별상으로 한인청소년이 아닌 히스패닉 크리스천 대안학교 학생 12명이 참가하여 특별상으로 시상했다. Kinder garden 3명에게도 특별히 Dreamer 상을 40명에게는 장려상을 수여했다. 이 시상식에서 영김 연방하원의원의 수석 보좌관인 최은애 보좌관이 참석하여 청소년 전원에게 상장을 수여하며 격려와 칭찬으로 청소년들에게 도전의 메세지도 전해 주었으며 효사랑선교회 스탭들에게도 봉사상을 수여하며 격려 해주었다. 이어 글짓기 대상수상자 사라 김 학생이 작품낭독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박재만 목사(미러클포인트교회)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한편 하나교회 카일 박 찬양사역자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1부 예배는 효사랑 선교회 부대표인 남승우 목사가 개회 기도했으며 Paul Ym 목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분의 은혜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눅 15:8-10)' 라는 제목으로 설교 했다. 이어 김영찬 목사가 환영사를 O.C. 교회 협의회 회장 심상은 목사와 O.C. 한인회 회장 조봉남 장로가 축사를 O.C. 목사회 증경회장인 추원호 목사의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효 글짓기, 그림 공모전을 마치고 기념촬영

서부교계 게시판

2023 국가기도의날 기도회

미주성시화운동본부와 나성순복음 교회가 주관하고 청교도 신앙회복운동, Jama, Soon Movement, 세기모, KACC, 월드쉐어 USA가 공동주최하는 '2023 국가기도의 날 기도회'를 오는 5월4일(목)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저녁 7시(찬양 6시45분 시작)에 갖는다.

▲ 문의: (213)662-2228

제 8기 가정선교세미나, 참가비 무료

미주가정선교회(대표 이재근 목사)는 제 8기 가정선교세미나를 5월 6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생수의 강 선교교회(19200 Pioneer Blvd.)에서 개최 한다. 본 세미나에서는 가정, 가정선교, 가정문제 해결 방안 등이 강의 될 예정이며 참가비는 무료. 점심식사가 제공된다.

문의: (562)714-0691

선한청지기교회 토요찬양집회

선한청지기교회(담임 송병주 목사) 토요찬양집회가 29일(토) 오후 7시에 갖는다.

▲ 문의: (626)913-6611

샌디에고갈보리장로교회 김동호 목사 초청부흥회

샌디에고갈보리장로교회(담임 김도일 목사)는 김동호 목사 초청부흥회를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28일(금)부터 30일(주일)까지 개최한다. 일정은 28일(금) 오후 8시30분, 29일(토) 오전 6시, 오후 7시30분, 30일(주일) 오전 8시, 9시30분, 11시30분

▲ 문의: (858)278-3210

달라스 중앙감리교회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가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함으로 인해 달라스 중앙감리교회로 교회이름이 변경되었다. 또한 교회 홈페이지도 www.DallasCentral.Church, www.JesusForYou.Org로 변경했다.

▲ 문의: (972)258-0991

세미한교회 언어능력발달 세미나

세미한교회(담임 이은상 목사)는 언어능력발달 세미나를 30일(주) 오후 1시30 캐롤튼 캠퍼스 팀키드 라이언채플에서 갖는다. 강사는 Tesia Choi (Prosper ISD 및 개인 치료 클리닉 활동 중)이다.

▲ 문의: 권오섭 목사 (682)221-5347

CMF 선교원 제3회 어린이 부흥집회

CMF 선교원(대표 김철민 장로)이 오는 5월 28일부터 양일간 제3회 어린이 부흥집회를 개최한다. 장소는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담임 김종규 목사)에서 열리며 킨더가튼에서 12학년까지가 대상이다. 참가비는 1인당 20달러, 두 번째 자녀부터는 각각 10달러다.

▲ 문의: (714)733-3566

한미가정상담소 창립 33주년 기금모금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한미가정상담소 창립 33주년 기금모금행사

한미가정상담소(소장 유동숙) 창립 33주년 기금모금행사를 채프만 대학교에서 22일(토) 오후 5시30분에 가졌다. 유동숙 소장은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비대면으로 상담사역을 해왔었는데 창립 33주년 행사를 후원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 소장은 "저희 상담소는 지역사회에서 상담이 필요한 분들이 마지막에 찾아오는 곳"이라며 "이분들을 위해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자유롭게 서비스를 할 수 있어서 33년을 이어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명상을 통해서 과학을 푸는 세계적인 우주 물리학자이자 채프만대학교 부총장 겸 석좌교수 미나스 카파토스 박사와 푸드 체인점'픽 업 스틱'(Pick Up Stix)의 창업자이자 중국계 백만장자인 찰리 장 자선사업가가 연사로 참석하여 '안개속의 인생 여정,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연설했다. 이날 기금모금 행사에는 오스 패밀리 오케스트라 트리오(피아니스트 찰스 오, 바이얼리니스트 앨리슨 오, 첼리스트 벤자민 오), 보컬리스트 박선영 씨가 출연하여 이날 행사를 빛내주었다.

〈박준호 기자〉

'나는 신이다' JMS 자료 조작됐다는 SNS 주장에…

이단 전문가 "신도 결속 위한 뻔한 속셈… 속지 말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등장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과 관련한 내용이 조작이라 주장하며 이를 온라인에 확산시키려는 정황이 포착됐다. SNS 인스타그램의 한 이용자는 지난 19일 "'나는 신이다' 제작진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정씨의 설교 내용을 왜곡 편집했다"는 글을 익명으로 작성했다.

이 게시자는 사흘 뒤 "법원은 JMS 성범죄 피해자의 녹취 파일이 사본이라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다"며 "이 정도면 피해자가 원본을 일부러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글을 잇따라 게시했다. 그는 처음 글을 올린 날인 지난 3일부터 24일까지 총 38개의 글을 작성했다. 하루에 약 1.8개씩 올린 셈이다.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인 게시글은 8500여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게시자는 "다큐멘터리 내용 중 뜨거운 논란을 빚은 정씨의 음성 자료가 조작됐다"며 "정씨의 목소리와 남성의 신음소리가 같이 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거짓된 자료"라고 주장했다.

반JMS 활동가 김도형 교수는 "정씨의 변호인 측에서도 주장하지 않는 내용을 비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녹음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 변호인들도 법정 내에서 녹취록을 트는 것을 기피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게시글들이 성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심동섭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증언은 거짓말이 아니었고 실제로 정씨는 구속된 상태다. SNS에서의 주장은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단 전문가들은 인스타그램 게시글이 JMS의 내부 결속 전략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 교수는 "JMS의 범죄들은 지도부도 전부 알고 있고 진실"이라며 "신도들을 결속하려는 뻔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탁지원 현대종교 소장도 "이단·사이비는 소란을 잠재우기 위해 언론 노출, 소송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며 "이번 인스타그램 게시글도 내부 동요자나 이탈자를 막기 위한 대안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부활의 계절

부활의 축복

정정숙(시인)

주님
죽음의 골짜기 너머
생명의 벌판에서 주님 기다리며
쓰라린 아픔 견뎌내고
환한 눈빛 아래 서 있습니다

주님
무거운 짐 벗겨 주신
용서의 주님 품에 안겨
다함 없는 주님 사랑
녹아 내리며 외칩니다

주님
사망권세 지긋이 밟고
영생의 소망 빗장을 열며
이제는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기적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시리고 저린 삶의 무게 버거워
마음 조아리며 애타할 때
나 위해 살아나신 부활의 기쁨
오늘 이웃과 주님 사랑 이어집니다

해외 선교사들의 특별한 선교 전략 들어보니

신학교 멘토링, 팀협력, 중산층 교육, 세계선교대회서 쏟아진 해외선교 전략

신학교 멘토링, 팀협력, 중산층 교육…. 세계 곳곳에서 복음화에 헌신하고 있는 한인 선교사들이 내놓은 선교 전략들이다. 현지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십분 고려하고 수년 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다져진 선교 노하우라고도 할 수 있다.

25일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가 서울 성동구 꽃재교회(김성복 목사)에서 개최한 제14회 세계선교대회에는 세계 각국에서 활동 중인 선교사들이 참가해 저마다의 선교 노하우를 공유했다.

인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대균(61) 선교사는 2001년에 '베델 뉴라이프 컬리지'라는 신학교를 설립했다. 그는 인도 교계를 짊어지고 나갈 전임 사역자를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신학교를 통한 선교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인도의 복음화율은 3% 정도에 불과하지만 신학교에 대한 인식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선교사가 신학교 사역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은 '멘토링'이다. 그는 "학교에서 셀그룹이나 패밀리 그룹 등을 만든 후 교수들이 1~2년간 소규모 단위로 학생들과 밀착하며 삶과 신앙의 안내자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는 매주 금식 기도회, 부흥회, 국내외 선교여행 등을 이어가며 전임 사역자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필리핀의 남창기(63) 선교사는 '팀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선교 현장은 점점 다양화·전문화되고 있어 선교사 혼자 힘만으로는 벅차다. 다만 함께 하면서 여러가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팀협력 체제로 선교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남 선교사는 "특히 선교 재정과 관련,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투명한 재정 관리를 위해 구성원들이 정기적으로 재정 지출 내역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 개개인의 선교 비전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와 공유, 공동 기도회·예배 등 팀협력 선교 활동, '들어오고 떠나는 자'에 대한 개방성 등도 필요조건이라고 밝혔다.

2015년 태국에서 '웨슬리 국제학교'를 설립한 김교묵(56) 선교사는 현지 중산층 이상 가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선교에 주력하고 있다. 국제학교의 경우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한 학교에서 최대 16년간 지속적인 기독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김 선교사는 "불교 중심의 태국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전파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며 "그럼에도 전도유망한 중산층 이상 가정의 학생들을 기독교인으로 거듭나게 하고, 추후 이들이 사회 곳곳에서 지도층으로 서게 된다면 태국에서 기독교 부흥의 봇물이 터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몽골에서 개척 교회를 설립한 김종진(58) 선교사는 개척교회 안착을 위한 전략으로 영적·행정적 교인 양성 시스템, 재정 자립을 위한 헌금 교육 등을 필수 요소로 꼽았다. 이어 그는 "한국교회들이 선교사가 현지에 형성해놓은 개척교회 관련 유무형 재산들을 영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보호 장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5000명이 넘는 전세계 청년, 복음으로 피어나다

청년 다니엘기도회 24일부터 닷새간 뜨거운 기도 물결 확산한다

24일 저녁 8시 '이한진 밴드'가 서울 강동구 오륜교회(김은호 목사) 비전홀에서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연주를 시작했다. 트롬본과 트럼펫이 만들어내는 묵직한 연주가 예배당을 가득 메우자 앉아 있던 청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찬양을 불렀다. 몇몇 청년들은 복도로 나와 연주에 맞춰 춤을 추기도 했다.

올해 세 번째 열린 '청년 다니엘기도회(기도회)'는 찬양의 열기 속에서 뜨겁게 막을 올렸다. 기도회는 오는 28일까지 닷새간 오륜교회에서 진행된다. 첫날 기도회에는 150여개 교회 청년 공동체에서 2500여 명의 청년들이 참석했다. 전 세계 3200여 교회 청년들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다. 기도회에는 매일 새로운 강사가 방문해 청년들을 만나 복음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최영환 엠트리 대표와 조영민 나눔교회 목사가 첫 이틀 동안 진행되는 기도회의 무대를 장식한다. 이어 김상인(움직이는교회) 목사를 비롯해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와 김연희 캄보디아 선교사가 차례대로 강단에 오른다. 기도회 기간 동안 청년들은 '사랑의 헌금'도 한다. 모아진 헌금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복구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청년 다니엘기도회 운영위원장인 김은호 목사는 "이번 기도회를 통해 주의 청년들이 말씀으로 하나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소망한다"면서 "말씀을 듣고 비전을 발견하고 받은 은혜를 열방에 전하는 청년 되길 축복한다. 일상을 선교적인 삶으로 만들자"고 권했다.

장신대, 콘텐츠 공유 플랫폼 '스위치' 켰다

장신대, 교회학교 교육부터 메타버스 선교까지

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김운용)가 마련한 기독 콘텐츠 공유 플랫폼 '스위치(SWITCH·Sharing Wisdom Is To be CHristian)'가 24일 공개됐다. 장신대는 이날 서울 광진구 학교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스위치를 통해 기독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스위치는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는 다양한 영상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영상 플랫폼이다. 현재 연령·절기·영역별 교육 목회, 가정예배 레시피, 목회자 디지털 리더십 등 8개 분야 212개 영상이 올라와 있다. '어른들만 모르는 우리 아이들의 성과 연애' '미디어에 빠져드는 다음세대 세우기'와 같은 교회학교를 위한 콘텐츠부터 '현장감을 불어넣는 영상 콘텐츠 개발' '메타버스에서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 등 목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상도 만날 수 있다. 이 사역을 위해 박래창 소망교회 원로장로가 2억원을 학교에 기부했다. 이후 박보경 신현호 신형섭 김효숙 교수와 기독교교육연구원 공동체성경읽기 지앤엠글로벌문화재단 등이 콘텐츠를 제작했다. 향후 기독교 방송국이나 단체들과 협력해 양질의 콘텐츠도 공유할 예정이다.

스위치 사역을 총괄하는 박보경 교수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장신대가 검증한 수준 높은 자료를 만나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며 "앞으로는 교회와 성도를 대상으로 좋은 콘텐츠를 공모해 시의적절한 영상을 제공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박 장로는 "스위치가 앞으로 교단 교회 학교 단체 등과 협력해 한국교회의 영성을 전 세계에 알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복을 넘어 사명으로' 침례회

목회자 부부 영적 성장대회 성료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총회장 김인환 목사)는 최근 제주도에서 '회복을 넘어 사명으로'라는 주제로 '2023 침례교 목회자 부부 영적 성장대회'를 성료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침은 목회자 부부의 영적인 쉼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의 행사를 기획했다. 제주중앙감리교회(장지원 목사)와 제주성안교회(류정길 목사)에서 오전 집회와 세미나를 한 후 오후에는 제주 관광 일정이 진행됐다. 저녁에는 제주성안교회에서 집회가 열렸다. 김인환 총회장은 환영사에서 "주님께서 영적 성장대회를 통해 교단 목회자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을 공급하실 것"며 "목회자 부부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에 도전받으며 침례교회의 새로운 도약을 경험하자"고 전했다.

첫날 집회에서는 최성은 지구촌교회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다. 최 목사는 '주여, 다시 한 번 부흥을'(열왕기상 19장 7~13절)이란 주제의 설교에서 "엘리야가 큰 승리를 한 후 영적 탈진을 경험했다"며 "그는 심각한 영적 탈진 속에서 광야에 들어갔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이후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회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엘리야처럼 목회자들도 주님께 간구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권면했다.

예장합동 제주선교센터 9월 전 착공…

세계 선교 기지 꿈꾼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총회장 권순웅 목사)가 제주도에 세계 선교 전진기지로 활용할 '제주선교센터(선교센터)'를 세운다.

예장합동 총회는 최근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의 선교센터 부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건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예장합동은 선교센터 건립을 위해 총회세계선교회(GMS)와 총신신대원 총동창회, 제주노회·제주수양관건립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총회산하 특별위원회도 조직했다. 오는 9월 이전에 선교센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주국제공항에서 차량으로 30여분 거리에 있는 선교센터 부지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남조로와도 가까워 접근성이 좋다. 7980㎡(2413평) 넓이의 부지에 총면적 992㎡(300평) 규모로 지어질 선교센터에는 GMS 선교훈련원과 제주선교100주년기념교회, 카페 등이 들어선다. 예장합동은 선교센터 옆에 20채의 타운하우스 건립도 검토하고 있다.

권순웅 총회장은 2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교센터가 건립되면 교단 선교사 교육과 다음세대 영성훈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교단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교육과 훈련의 요람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선교 100주년을 기념해 2008년부터 추진됐던 선교센터는 그동안 적지 않은 부침을 겪었다. 2010년 현재의 부지를 매입한 예장합동은 건축비 문제로 착공을 못 하다가 급기야 2021년 106회 총회에서 부지 매각이 결정돼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지난해 권 총회장을 중심으로 선교센터 건립에 다시 시동을 걸면서 공사 진행이 가시화되고 있다.

선교의 창 (215)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옥합을 깨뜨리는 선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다. 그 사랑은 희생을 동반한다. 희생이 없는 사랑이란 거짓이다. 사랑이 클수록 희생도 크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방법도 처절한 대가를 지불하셨다. 인류의 선교 발자취도 이러한 원리를 따라왔었다. 선교역사에서 이름을 남긴 종들은 한결같이 주님의 희생정신을 본받아 선교지에서 청춘과 생명을 바쳤다. 따라서 후대를 사는 우리도 앞서간 믿음의 선각자들을 뒤따라가야 한다. COVID-19 이후인 지금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 이론들이 분분하다. 선교전략이나 방법 등을 연구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 운동경기에서 불문율이 하나 있다. 경기가 잘 안 풀릴 때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교의 기본 원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 옥합을 깨뜨리는 일이다. 성령의 역사는 그러할 때 나타나 왔다.

1.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

옥합을 깨뜨린 향유사건은 4복음서가 공히 소개하고 있다. 왜 그러한가? 이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특별한 상징적 의미가 있으며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함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유월절 엿 세전에 베다니에 오셨고 거기서 잔치가 벌어졌다(요 12:1-2). 그때 마리아라 이름하는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 깨뜨려 그 기름을 주님 머리(마 26:7, 막 14:3)와 발(눅 7:38, 요 12:3)에 부었다. 나드(Nard)란 무엇인가? 아가서 1:12에 "나도 기름"이라고 번역되어있는 "네르드(נֵרְדִּי)"라는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자란 발레리 (Valerian)과에 속하는 다년생 풀로서 (참고: 성경의 식물-Nard) 주로 뿌리에서 추출된 향유이다. 나드는 대체로 석회로 만든 옥합이란 예쁜 병에 기화되어 날아가지 못하도록 밀랍으로 봉합되어 있었다. 이는 무역 상품으로서 왕이나 부자 또는 귀족들만 사용할 만큼 귀중했으며 비쌌다. 예수님 공생애 때에는 1데나리온의 값어치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이었으니 지금 시가로 계산하면, 적어도 30,000불 정도 되었을 것이다. 당시 여인들의 경제활동이나 사회적 입지를 감안한다면 나드 한 옥합은 그녀에게서 꿈과 미래, 결혼, 노후까지 대비할 정도로 어쩌면 고이고이 간직한 보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소유물 중 최고의 것을 일순간에 깨뜨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비싼 향유를 낭비한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저들을 나무라고 이 여자의 행위를 칭찬했다. 온전한 희생과 헌신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2. 짐 엘리엇 JIM ELLIOT (1927-1956) 선교사

1956년 1월 8일 에콰도르의 쿠라레이 강가, '팜비치(Palm Beach)'라고 부르던 모래톱 위에는 5명의 시신이 창에 찔려 널브러져 있었다. 바로 짐 엘리엇(Jim Elliot)을 비롯하여 네이트 세인트(Nate Saint), 에드 맥컬리(Ed McCully), 피터 플레밍(Peter Flemming), 로저 유더리언(Roger Youderian)라는 선교사들이었다. 그들은 몇 달 전부터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해 소형 비행기를 이용하여 선교방송과 함께 선물꾸러미를 투하하였다. 마침내 그들은 강가에 내려 텐트를 치고 아우카 족을 만나기 위해 준비를 하였다. 이 사건은 닷세째 될 즈음 일어났으며 라이프지와 타임지에 대서특필되었다. 신문논조는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What a unnecessary waste!)"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무엇 때문에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개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당시 여론은 무모한 선교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하지만 짐의 아내 엘리자베스(Elisabeth)는 남편이 순교한 지 2년이 지난 1958년 가을에 목숨을 걸고 어린 딸 밸러리(Valerie)와 함께 아우카 부족을 찾아갔다. 남편이 이루지 못한 과업을 위해서였다. 5년 후 부족을 떠나는 엘리자베스에게 추장이 물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 제가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부인의 말을 들은 아우카 족은 큰 감동을 받고 모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 그 중에 짐 엘리엇을 죽인 청년은 나중에 아우카 족의 목사가 되었다고 한다. 후에 저들의 추장이었던 사람이 빌리 그래함이 주도하는 한 예배에서 간증을 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Tertulian)은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말했다. 짐 엘리엇이 그 장본인이었다. 그는 19살, 대학 2학년 때에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 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키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3. 우려되는 기독교 선교의 흐름

지금 세계선교를 향한 크리스천의 열정과 헌신은 어떠한가? 서구교회이든 한국교회이든 급속하게 세속의 흐름에 영향을 받고 있다. 첫째, 선교 헌신자이다. 리빙스턴, 허드슨 테일러, 언더우드 등 옛날에는 앞뒤 안 가리고 젊은이들이 20대에 헌신을 했다. 현재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목숨을 걸겠다는 청년들이 있는가? 가뭄에 콩나물 나듯 찾기가 어렵다. 선교 헌신자 대부분은 은퇴 후 사람들이다. 한참 젊을 때는 자기 삶의 자리를 파괴하지 않고 그저 단기선교란 명목으로 선교지를 들락거린다. 둘째, 선교 기도이다. 오늘날 성도들 마음속에 선교를 위해 금식이나 철야하며 눈물로 간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중보기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선교는 사상누각(砂上樓閣)이 되기 쉽다. 셋째, 선교 후원이다. 후원금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년 말 예산 편성 시 대외적 지출은 제일 먼저 삭감되기 일쑤다. 그나마 후원마저도 각자의 필요를 채우고 남은 것으로 한다. 넷째, 선교 물자이다. 선교지에 보낸 대부분의 물자는 이미 사용했던 것들이거나 버릴 것들이다. 물론 피선교지에서는 그나마도 감지덕지하다. 고맙기는 하지만 큰 감동은 없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21세기 우리의 선교행태는 세속화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은 대체로 계산적인 선교, 물량적인 선교, 이기적인 선교, 옥합을 깨뜨리지 않는 선교이다. 이러한 선교패턴은 교회 안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교회가 쇠락해가며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고 가슴이 냉냉한 것은 본질적 사역이 없거나 미약하기 때문이다.

맺음 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 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가납하겠느냐" (말 1:8).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제물은 성물(聖物)이다. 그 제물은 흠(欠)이 없어야 한다. 성경에 온전하지 못한 제물은 열납되지 않는다고 했다. 제물의 조건은 무엇인가? 먼저 제물을 바치는 자가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되 흠 없어야 하며 또한 짐승들 중에서 가장 질이 좋은 것이어야 했다. 세계선교도 일종의 산제사(롬 12:1)된 자세로 해야 한다. 선교적 기도, 헌금, 헌신 등 무엇을 하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본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사람 보기에 모양새는 있겠지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만홀(漫忽)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갈 6:7).

jrsong007@hanmail.net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며 이는 희생을 동반한다.
옥합의 의미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리는 일이다.
교회는 세속의 물결을 차단하고 선교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C. S. 루이스의 생애 산책(1)

출생과 인문학 소양 조기 교육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C. S.루이스(Clive Staples Lewis, 클리브 스테이플 루이스)는 1898년 11월 29일 울스터(Ulster/현재 노던 아일랜드) 지역의 수도요 번성했던 항구 도시 벨파스트(Belfast)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벨파스트는 조선(造船) 산업이 활발했고 호화유람선 타이타닉을 건조한 조선 공장이 있었던 유명한 항만 도시입니다. 벨파스트만(灣)은 영국 산업혁명의 중심지였고 20세기 후반에는 국제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던 것이었습니다.

루이스는 태어나자마자 성공회 교구에 소속되었습니다. 루이스 부모는 루이스의 외할아버지 토머스 해밀턴이 교구 목사로 섬겼던 벨파스트 던델라 세인트 마크 교회(성 마가 교회)에 출석했고, 루이스는 자연스럽게 이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 기록에 의하면 루이스의 유아세례일이 1899년 1월 29일이고 출생일이 1898년 11월 29일로 기록되어있고 예식 집례 성직자는 그의 외할아버지 토마스 목사였습니다. C.S. 루이스는 외할아버지 손에 유아 세례를 받았고 그의 영적 영향력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C. S. 루이스의 부모들은 교육을 많이 받고 책을 좋아하고 독서를 즐기는 중산층이었습니다. 아버지 앨버트 루이스(Albert Lewis)는 나름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앨버트는 재판의 문서를 다루는 행정변호사였고 그는 정치에 관심이 많았으나 그는 정작 정치에 뛰어들지는 못했었습니다. 문학에 관심 많아 문학 클럽에서 활동했습니다. 문학 클럽 회원 등 지인의 의견에 의하면 앨버트 루이스는 웅변 실력이 상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정적인 남성이었고 자녀들의 교육에 굉장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루이스의 어머니인 플로렌스 아우그스타 해밀턴(Florence Augusta Hamilton)은 벨파스트에 있는 퀸스 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퀸스 대학은 영국 전체에서도 꽤 좋은 대학 중의 하나였습니다. 루이스의 어머니는 퀸스 대학교를 졸업할 때 우등상을 받았습니다. 당시 대학가는 여자가 흔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아 루이스의 어머니는 상당한 엘리트 여성이었습니다.

C. S. 루이스의 부모들은 1894년에 결혼했고 1895년에 첫아들 즉, 루이스의 형인 와렌(Warren)을 나았습니다. 그리고 1898년 11월에 C. S. 루이스가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루이스가 9살이던 해에 플로렌스가 암으로 사망함으로 결혼생활이 끝났습니다. 앨버트 루이스는 아내와의 사별의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아들과의 관계도 건강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C. S. 루이스 아버지 앨버트는 아들들이 책을 읽는 환경을 위해 집을 책으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일찍부터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루이스는 이미 세 살 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손에 잡히는 것은 닥치는 대로 읽어대는 독서광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책 읽은 습관을 지녔던 루이스는 평생 책을 읽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울러 루이스는 어린 시절부터 글을 썼습니다. 8살 때부터 루이스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알려집니다. 그는 평생 읽고 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흥미롭게도 루이스가 얻은 첫 직장은 학생들의 글을 읽고 교정해 주는 철학과와 영문학과 교사(Tutor)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독서와 글쓰기로 준비된
기독교 변증가, 회의론자들의 지도자

루이스와 그의 형 와렌(Warren)은 손가락이 약간 기형으로 운동이나 게임을 잘하지 못했고 관심도 재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어릴 때부터 시간만 나면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다고 전해집니다. 루이스와 형은 어렸을 때는 집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프랑스어와 라틴어를 가르쳤고 다른 과목들은 가정교사였던 애니 하퍼가 가르쳤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루이스의 부모는 뿌리 깊은 기독교 가정 출신들이었습니다. 루이스의 증조할아버지는 감리교회의 목사였고, 할아버지는 전도용 팜플렛을 만들어 사용할 정도로 독실한 신앙이었습니다. 총신대에서 역사를 가르친 홍치모 교수는 루이스의 고조부가 영국 서부 웰스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루이스의 외가는 성직자 집안이었습니다. 루이스의 어머니는 해밀톤가 출신의 아일랜드 성공회(Church of Ireland) 사제의 딸이었습니다. 루이스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모두 성공회 성직자였습니다. 양가의 신앙적 전통을 따라 루이스 부모들은 두 아들과 함께 루이스의 외할아버지가 사제로 있었던 던델라(Dundela)의 성 마가 교회에 매 주일 정기적으로 출석하였습니다.

루이스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교회 출석했지만, 개인적이고 특별한 신앙 경험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루이스의 부모들도 열정적인 신앙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후일에 루이스는 편지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특별히 경건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매주 나를 데리고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루이스는 자신의 책에서 소년 때에는 기독교와 신앙에 특별한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이런 경험들이 루이스 자신이 느낀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끼쳤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들로 루이스는 무신론자가 되기도 했지만, 어린 시절의 신앙적 경험들이 기독교 신자가 된 이후 그의 신앙생활이나 그의 저작 활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루이스는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의 부모는 루이스가 7세 되던 해 벨파스트(Belfast) 근교에 새집을 지어 입주했습니다. 이 집 모든 공간에 각종 책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 집으로 이사 올 때 형은 이미 기숙학교에서 생활했기에 루이스는 형이 없는 외로움을 독서로 달랬고, 이 시절에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이 시절에 읽었던 책들이 루이스 일생에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C. S. 루이스가 어린 시절부터 독서광이었을 뿐만 아니라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루이스는 이 무렵부터 고전어인 라틴어와 헬라어 그리고 유럽 외국어를 습득했습니다. 이 과정이 루이스가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요 회의론자들의 전도자로 준비되는 인문학 수업 과정이었습니다.

Kangtg1207@gmail.com

매일가정예배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 샘터사역원 LA지부장)
dsukim@gmail.com

월 중심이 아름다운 성전이 됩시다 (학 1:13-15) 찬536장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보내셔서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싼 재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산에서 나무를 베어서 짓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성전이 화려하지 못하여도, 그곳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약속은 출애굽 당시 성막을 지으실 때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화려하지 못해도 마음을 담아서 건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화려함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쏟아서 세우는 성전을 원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횟수, 기도하는 시간,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 헌금에 우리의 진심과 중심이 담겨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화 성전은 '짓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학 2:10-14) 찬204장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켜서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여러 나라의 왕위와 권력을 무너뜨릴 것이며, 그들의 전차를 엎어버리며, 그들의 말과 기병들이 서로를 죽이게 할 것이다. 스룹바벨아! 힘을 내거라! 내가 너를 주변 나라들 가운데 높이 세우고, 나의 대리자로 삼겠다!(학 2:20~23)

성전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지어져 가듯, 정작 중요한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져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행동 양식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성전다운' 말을 하고, '성전다운' 행동과 결정을 하며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슥 1:1-4) 찬527장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유다 백성들이 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던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은 목표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 12:2a)" 우리 삶의 방향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그 분께 돌아가야 합니다. 마음과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목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슥 4:6-9) 찬23장

스가랴는 그가 본 여덟 개의 환상을 선포합니다. 각 환상은 성전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한 심판과 성전 재건을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지어지는 성전은 우리의 힘으로 완공할 수 없습니다. "성전 건축은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완성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을 내가 무너뜨려서 평지처럼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찬송'뿐입니다. 위로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유다 백성들의 오직 한 가지 반응은 '찬송'이었습니다.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슥 4:7b)"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찬 23장)'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오직 찬송뿐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릴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 전도지가 됩시다 (슥 8:18-23) 찬455장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거주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의 영적 생활도 회복될 것입니다. 억지로 하던 금식도 기쁨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이방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전도지'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의 신앙생활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납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전도지'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위의 불신자들이 생명의 길로 돌아올 것입니다.

토 내 힘을 제한하시는 이유 (슥 9:9-10) 찬71장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인접한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 승전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왕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임재하여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회복시켜주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병거와 말, 활을 끊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 방법은 더 큰 힘과 더 좋은 무기를 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꺾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항복함으로,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이 끊어질 때,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을 걸고 있는 우리의 능력을 끊고, 참 소망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교육 (26)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기독교교육과 사역팀

모든 크리스천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벧전 2:9). 이와 같은 교리를 중시하는 교회들은 대개 리더들이 팀을 이루어 사역을 이끕니다. 그와 같은 팀들을 흔히 위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위주의적인 느낌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사역팀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성경에서도 사역팀들의 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모세와 함께 백성을 인도한 사역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여호수아와 함께 한 사역팀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사역팀과 함께 선교여행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사역팀을 개발하고 활용하셨습니다.

사역팀은 리더들이 협동하여 사역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동사역의 혜택이 전도서 4:9-12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다음은 성경에 기록된 협동사역의 예입니다: 조직과 역할분담(출 18장), 제사장 직분의 형성(출 28장),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들을 불러 사명 위임(신 31-34장), 의논과 지략의 유용함(전 15:22),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부르심(마 3:16-19), 결과를 위해 여럿이 협력(요 4:37), 공동체의 사역을 통한 교회성장(행 2:42-47), 섬기는 자들 선별(행 6:1-7), 리더들이 모여 바른 가르침을 세움(행 15장), 교회의 협력(롬 12:4-8), 지체들의 협동(고전 12:4-27), 몸 된 교회의 동역자들(엡 4:11-12).

사역팀이 교회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으려면, 구성원 모두가 소속감을 갖고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사역팀이 존재하는 목적과 달성해야 할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사역팀이 목표 달성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역팀의 구성원들은 이전에 속했던 사역팀에서 얻은 경험과 인상에 따라 행동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구성원들의 마음에 있는 개인적인 목표가 사역팀의 공식적인 목표에 방해가 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역팀의 리더는 구성원들이 목적과 목표와 필요를 파악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구성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구성원들이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구성원들의 활동을 평가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각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교회에는 상임사역팀들과 특별사역팀들이 있습니다. 상임사역팀들은 예배사역팀, 교육사역팀, 선교사역팀, 봉사사역팀 등, 교회의 지속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팀들입니다. 그들은 교회사역의 성격상 항구적으로 있어야 하며, 교회의 규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임사역팀의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회중이 선출하며, 구성원의 임기는 교회의 규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사역팀과 목회자를 연결하는 교역자가 당연직 구성원으로 활동합니다. 당연직 구성원은 투표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임사역팀에는 서기가 있어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역팀의 활동내역을 정해진 때에 교회 전체에 보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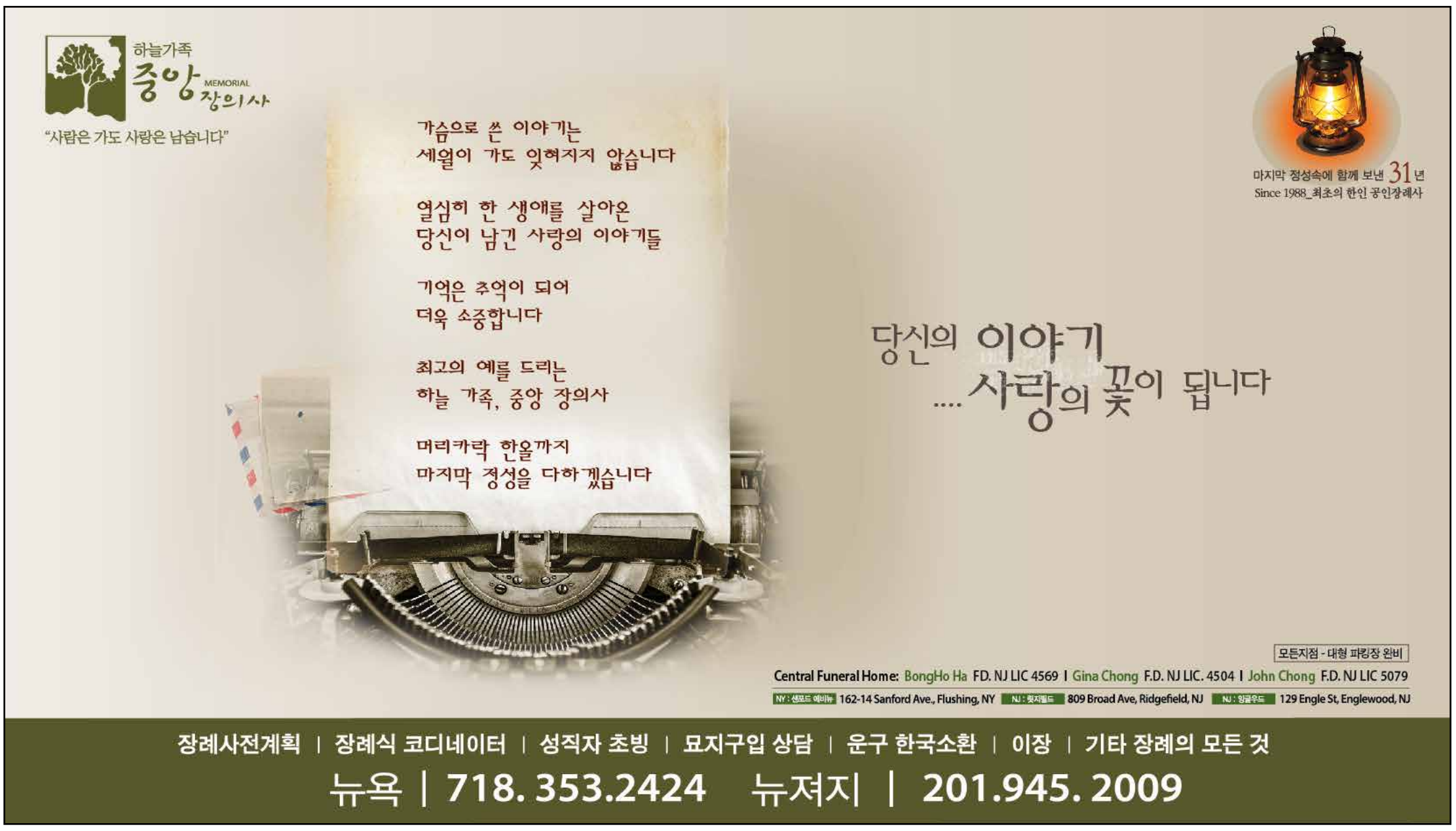
특별사역팀들은 특정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로 조직하는 사역팀들입니다. 구성원들은 주어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자격을 유지하고 활동을 계속합니다. 상임사역팀과 마찬가지로 회의와 활동의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회중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특별사역팀에는 청빙사역팀, 장학사역팀, 건축사역팀 등이 있습니다.

사역팀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역팀의 목적과 이름을 결정합니다. 둘째, 목적선언문을 작성합니다. 사역팀의 임무와 권한과 점검절차 등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셋째, 구성원을 결정합니다. 이때 사역팀의 책임자, 구성원의 선임절차, 구성원의 수와 임기 그리고 충원방법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넷째, 목표를 작성합니다. 사역팀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보고계획을 수립합니다. 사역팀의 활동을 누가 언제 얼마나 자주 누구에게 보고할 것인지를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상임사역팀 중의 하나는 교회 운영사역팀입니다. 이것은 여러 사역팀을 대표하는 리더들의 모임입니다. 교회 운영사역팀의 목적은 예배, 교육, 전도와 선교, 그리고 봉사 프로그램을 계획, 조직, 실행, 그리고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역이 교회의 사명선언문에 맞추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역팀들에 대해 코치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교회 운영사역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므로 리더들이 팀을 이루어 사역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목회자가 혼자 활동하면 사역이 단순하고 효율적일 수 있지만, 사역팀은 사역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수가 사역을 결정하고 진행하다 보면 교회 내에 은사와 필요의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역팀이 결정한 계획은 여러 사람의 기여로 인해 폭넓고 치밀한 계획이 되어 더 많은 교우들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냅니다.

jonk@dbu.edu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66.해혼(解婚)

해혼은 황혼이혼의 대안

'이혼의 원인은 결혼'이라는 우스개가 있습니다. 결혼이 없었다면, 가슴 아픈 이혼도 없었을 것이 라는 얘기 입니다. 혼자 살기보다 함께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결혼합니다. 함께 살기보다 홀로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혼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선택하는 것은 그것이 함께 사는 일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황혼이혼이 대세라고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부부라는 의무감 때문에 서로가 하고 싶은 일 많이도 참고 살다가 자녀들을 다 출가시킨 후 끝내는 미워하고 원망하며, 노년에라도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이유로 황혼이혼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한길리서치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50, 60세대 70%가 황혼이혼을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누구를 위해 살것인가?라는 질문에 47.7%가 '나를 위해'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같이 살되 같이 살지 않는 삶,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여행을 떠나고 싶으면 훌훌 여행을 떠나는 삶을 살 수 있는, 노년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없을까? 황혼이혼의 대안으로 '해혼(解婚)'이란 새로운 결혼 풍속도가 생겼습니다.

1. 해혼(解婚)의 뜻

한자에서 알 수 있듯이 풀 해(解)자에 혼인할 혼(婚)자를 사용하는 말로써 '혼인을 풀어준다, 해지 한다'는 뜻(free from duties and rights in marriage)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해혼도 결혼의 한 형태로, 황혼이혼의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부부의 연을 맺어 주는 것이라면, 해혼은 혼인의 관계를 풀어주는 것이므로, 이혼과는 엄연하게 다른 개념입니다. 가족이라는 하나의 과정을 매듭짓고 서로 자유로워진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혼인관계인데,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오게 되었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결혼은 서로 남남이었던 남자와 여자로 시작하여 결혼생활로 인해 자녀를 낳고, 가족과 친척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다가 다시 본래의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돌아가되, 그 사이에 생겨난 많은 것들을 끊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는 하나의 방법이 해혼입니다.

2. 해혼과 이혼

화합하지 못하고 상대를 원망하며 헤어져 완전히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것이 이혼이라면, 해혼은 서로 합의하에 결혼생활은 그대로 유지하며 한 집에서 살아가되, 결혼에서의 부부로서의 의무와 권리에서 자유로운 관계를 유지하므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혼(結婚)이 부부의 연(緣)을 맺어주는 것이라면, 해혼(解婚)은 혼인관계를 풀어주는 것이니, 불화로 서로 갈라서는 이혼과는 다릅니다.

서로 간의 마음은 유지하면서도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므로 일본의 졸혼과 인도의 해혼은 같은 유사한 개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졸혼, 해혼하기 전에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부부간에 가족간에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 내어야 합니다. 서로 간에 이해되지 않는 졸혼과 해혼은 결국 이혼의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3. 해혼의 유래

7세기 중국의 남조(南詔)에는 '해혼(解婚)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식이 다 성장하고 나면 부부의 의무에서 서로 벗어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서로 새 짝을 만나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사회 통념상 결혼에 실패했다는 뜻이 강한 이혼이란 말 대신 쓰는 해혼과는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또 다른 해혼도 있습니다. 졸혼이 일본에서 유래된 것이라면, 해혼은 인도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오래전부터 해혼 문화가 있었는데, 부부가 자식을 키우며 열심히 살다가 자녀가 결혼하면, 남자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의무(짐)를 내려놓고, 자기가 하려고 했던,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는 37세 때 아내에게 '해혼식(解婚式)'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해혼이란 부부가 가정을 유지하면서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간디는 아내가 1년 이 지나 고민 끝에 마지못해 동의하자, 해혼한 뒤 고행의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함석헌의 스승이자 큰 사상가였던 다석 유영모 선생도 51세에 해혼(解婚)을 선언하고 부인의 생활에 일체 간섭하지 않고 오누이처럼 오손도손 지내며 91세까지 재미있게 살았다고 합니다.

4. 해혼에 대한 성경적 관점

해혼이 이혼을 방지하고, 황혼이혼의 대안으로 새로운 결혼 풍속으로 사회적 대세로 뜨고 있지만, 별거든 졸혼이든 해혼이든 결국은 이혼으로 이르게 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노라"(말 2:16)고 말씀하셨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 지니라.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 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막 10:7-9)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백세시대를 맞아 오랫동안의 결혼생활에 권태기가 오고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서로 독립하여 편하고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자고 사람이 여러형태의 변형적 새로운 결혼 풍속을 만든다는 것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성경적 관점입니다.

jaekunlee00@hotmail.com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동남아시아 M국

▲ 종족명
몬도우 종족

▲ 인구
약 25,000명

▲ 종교
현재 성공회가 전 지역을 담당, 교인 수는 약 5,000명

▲ 기타
문맹률 80%

▲ 프로젝트 소개
몬도우 종족 프로젝트는 M국 동쪽 중앙 정글 지역에 있는 종족의 성경 번역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다.

▲ 프로젝트 진행
1980년 시작, 2002년 신약 성경의 50%가 초역된 상황에서 중단되었다가 2016년 1월 재개되어 2022년 누가복음을 출판, 배포했다. 신약 성경 번역은 총 8년 장기 프로젝트로서 초역, 석의 점검, 번역된 초역을 마을 사람들과 같이 점검하는 2차 점검, 자문 위원과의 최종 점검 등이 있다.

▲ 기도제목
1. 전기와 인터넷이 빠른 시일 안에 구축되어 연기된 사도행전과 복음서 번역이 속히 재개되도록
2. 몬도우 성경번역위원회의 성경 번역에 대한 이해가 깊어 지고, 번역의 중요한 결정 과정마다 하늘의 지혜로 결정하며, 의장과 위원들이 번역의 맛을 깊이 맛보고 헌신하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상)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Youth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6:00(월-금)
Tel.(213)481-2779 / facebook.com/srcsc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1부 예배 : 오전 7:20
주일2부 예배 : 오전 9:20
주일3부 예배 : 오전 11:20
젊 은 이 예배 : 오후 1:20
영어권 (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정훈
주일1부예배:오전 8:30
주일2부예배: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오전 9:30 , 11:00
새 벽 기도 회: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저녁 7:30
Tel.(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주일오후찬양예배: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 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Tel.(213)381-2202, www.mpcl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11:30
일어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세계선교교회
담임목사 : 김창섭
주일 1부예배 :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 오전 11:00
E M 예배 : 오전 11:00
금요예배: 매월 마지막 금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Tel.(213) 388-1927 / www.wmcla.com /worldmissionchurch9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실비치 사랑교회 (Seal Beach Sa-Rang Church)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탐구예배: 오후 6:30
Tel:(310)749-4756
실비치 리저월드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수)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11:30
수 요 예 배: 오후 7:00
새 벽 예 배: 오전 6:00(화-토)
Tel.(323)737-3009, Cell.(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협동목사)
상담사역: (월-금)오전10시오후4:30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회 평신도 여성리더
사 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세미나
3. 말씀사역
4. 네트워크 사역
www.elpistamily.org Tel.(213)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Tel.(714)446-6200, www.gracemi.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청년)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새 벽 기 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망회: 오후 7:20(금)
Tel.(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749-4500, www.gcj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11W Las Palmas Dr., Fullerton, CA 92835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310)530-4040(CH), www.cornerstonetv.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1부예배: 오전 8:00 (본당)
주일2부예배: 오전 9:45 (본당)
E M 예 배: 오전 9:45 (101호)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본당)
수 요 예 배: 오후8:00 (본당)
새 벽 예 배: (월-토) 오전5:30 (본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 김덕수
주일예배: 오전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수요모임: "어성경이 읽어지네"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7회 총회 공고문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107회 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총회 임원회는
미주중부노회 복구예배를 다음과 같이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107회 총회장 권순웅목사 / 서 기 고광석 목사 / 복구조직 소위원장 전총회장 김종준 목사

일시: 주후 2023년 5월 29일 (월) 오후 4시
장소: LA가든 스위트 호텔 대회의실 (68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5)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7회 총회 결의문

본교단 제107회 총회에서 미주중부노회를 복구조직 해달라고 하는 헌의안
(헌의자 : 남평양노회 영광교회 원로목사 박광재)에 대하여 총회임원회에 맡겨서 처리하기로 결의하다.

예장합동총회 미주중부노회 복구조직 지도위원 박광재 원로 목사 위촉

귀하를 제107회 총회 미주중부노회 복구조직을 위한 지도위원으로 위촉하오니 총회의 사명과 목적을 위해 충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후 2023년 01월 0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7회 총회 총회장 권순웅 목사 |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7회 총회 서 기 고광석 목사 | 미주중부노회 복구조직 소위원장 전 총회장 김종준 목사

미주중부노회 복구 조직 가입대상 교회와 목회자 자격

본국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출신목사님들께서 섬기는 조직교회 및 미조직교회와 목사님들
기존의 서부노회와 동부노회에 가입하지 않고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회와 목사님들

가입하는 교회와 목사님들께 드리는 혜택

미자립교회의 경우 본국 총회의 미자립교회 지원위원회와 미주중부노회에 조직될
미자립교회 지원위원회로부터 심사를 거쳐서 지원혜택을 드립니다.
본국 총회의 총대로 파송받는 총대님들께는 일정량의 회의 참석비 및 교통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본 노회원께서 원한다면 미군목으로 지원 임관하여 세계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미주중부노회 복구조직 가입신청서 양식

1. 교회등록신청서(총회양식) 2. 교세통계표(총회양식)
3. 안수받은 노회가 발급한 목사 안수증명서 4. 공동의회록 및 교인서명날인
*서류다운 웹사이트(www.mijoojoongbu.org) 미주중부노회 총회공문 다운받아 신청서 작성

1차 지원 마감 날자
당회 조직교회의 경우 / 주후 2023년 05월 05일(금)까지

2차 지원 마감 날자
당회 미조직교회의 경우 / 주후 2023년 05월 29일(월) 오후 4시 까지

미주중부노회 복구조직을 위한 가입 신청 및 복구예배 사전예약 접수처
미국 현지 도우미 간사: 김여영 / 전화번호 213-505-4275 E- mail: holylot@naver.com
본국 총회 간사: 이정은 E- mail: jeongeun151@hanmail.net

미주중부노회 복구조직 예배 초청장

성삼위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미주지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산하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선후배 동문 목사님들께
정중히 문안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47년 전 대한예수교장로회 제60회 총회에서 미주중부노회가 신설되었습니다.
하오나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인하여 미주중부노회가 폐쇄된 지 40여 년 만에 다시금 복구합니다. 지나간 제104회 총회 시부터
제107회 총회에 이르기까지 4년 차에 걸쳐서 박광재 목사 (남평양노회 총대)의 끈질긴 헌의 끝에 드디어 제107 회 총회 (총회장 권순웅 목사)에서
총회임원회에 맡겨서 처리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제107회 총회로부터 수임받은 총회임원회는 미주중부노회를 다시금 복구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래와 같이 주후 2023년 05월 29일(월) 복구예배를 드리게 된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실로 미주중부노회가 신설된 이후 47년 만에 다시금 복구되는 이 기쁜 날에 LA를 비롯한 전 미주지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총신 선후배 동문 목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중히 초청합니다. 만찬 준비를 비롯한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70여 분만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 LA가든스위트호텔 대회의실 / 일시 : 주후 2023년 05월 29일 (월) 오후 4시

초청인: 미주중부노회 복구조직에 가입한 10개 당회 및 60개 미조직교회 총70개 교회대표 /
미주중부노회 복구조직 지도위원 / 미주중부노회 복구예배 준비위원장 박광재 목사 배상